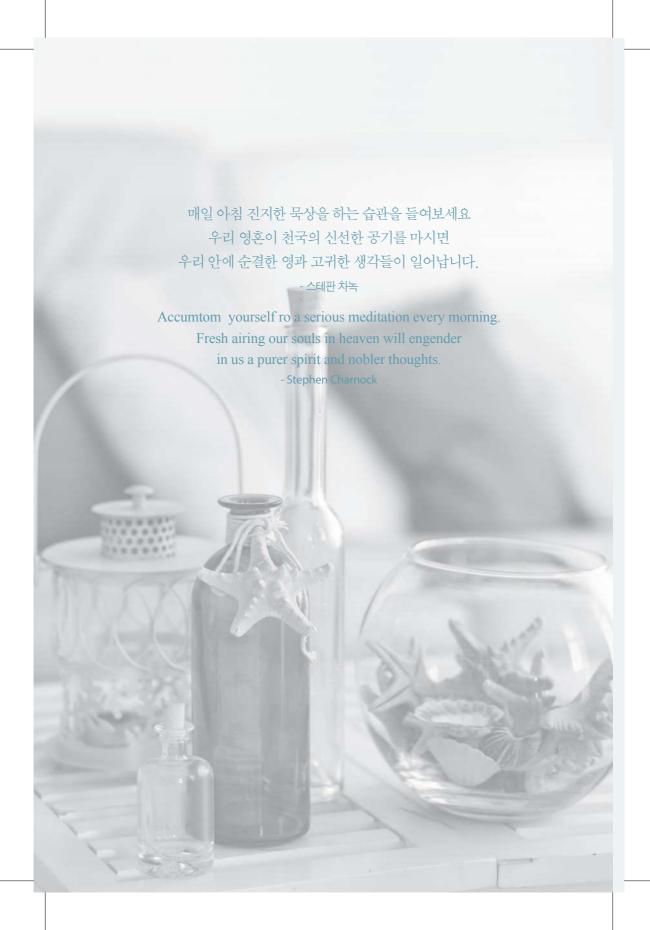
기쁨의언덕으로 edSant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NNA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Dear Lord 주님,

From July 2021, 7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mark>로렌스 형제</mark>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회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면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희망합니다.

다섯 번째 편지

FIFTH LETTER

서원하고 성직자의 길에 들어서려는 자매를 위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소유하게 하세요

오늘 나는 서원(profession) 준비를 하는 자매님으로부터 책 두 권과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 및 특별히 당신의 기도를 무척 바라고 있더군요. 그 큰 기대를 아는 바, 제발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그 자매가 오직 그분의 사랑이라는 관점(in the view of His love)에서만,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굳건한 결의(firm resolution)로 헌신을 다짐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주세요.

당신께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에 관한 여러 책 중 한 권을 보냅니다. 내 의견으론 완전한 영적 삶(the whole spiritual life)을 담고 있는 내용(subject)이군요. 누구든 충분히 연습하면 곧 영적인 사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연습하려면 우리 마음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비 워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possess) 때 문이지요. 이외의 것들을 모두 없애지 못 한 채, 그분께서 단독으로 우리 마음 을 지니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선 그곳에서 활동(act) 하실 수 없음은 물론, 그 분께 자리를 비워드릴 때까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도 그 안에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continual conversation with GOD)를 나누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삶 같은 건 세상에 없답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는(practise and experience) 사람이라야 이해할(comprehend)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원리(principle of love)에서 이를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따라서 내가 만일 설교자(preacher)라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도자(director)라면, 이를 행하라고 모든 세상에 조언할(advise) 것입니다. 나는 이 연습이 꼭 필요하고 또 무척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아!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the grace and assistance of GOD)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안다면,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텐데요. 단 한순간도 말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더 이상은 그분을 의도적으 로(wilfully) 잊는 일 따위 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남은 생을 그분의 신성한 존재 (His sacred presence) 안에서 보내겠다고, 바로 지금 거룩하고 굳은 결의 (holy and firm resolution)를 다지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위 안거리들(all consolations) 조차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버리겠다 고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heartily)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필요한 바대로 실행할 때, 조만간 그 효과를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부족하지만, 기도로서당신을 돕겠습니다.

진정으로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의 기도에 내자신을 위탁하며

여섯 번째 편지

SIXTH I FTTER

책을 보내온 수도원 일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유지하면서 늘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00 부인 편으로 당신이 전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헌데, 일전에 제가 보 낸소책자를 분명 받으셨을 텐데 그에 관한 의견을 주시지 않은 것이 좀 뜻밖이 군요. 비록 연세가 많더라도, 부디 정성을 다해(heartily) 이 훈련(practice)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신앙인들(religious persons)이 하나님의 임재(of the presence of GOD)를 연습하지 않고서 어떻게 만족하고 살수 있는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내경 우엔 할수 있는 한 내 영혼 깊은 곳(in the depth of centre of my soul)으로 물러나(retired) 그분과 함께 하곤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만, 그분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견딜 수 없어집니다.

이 훈련이 몸에 많이 고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때로, 아니 자주, 해롭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innocent and lawful) 많은 소소한 즐거움(many little pleasures)들을 앗아간다고 보면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영혼이 다른 즐거움을 취하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랍 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신을 제어(constraint)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로(in a holy freedom) 하나님을 섬겨야(serve)합니다. 괴로움이나불안함 없이(without trouble or disquiet) 우리의 업무를 신실하게(faithfully)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걸깨달을 때마다 조심스럽고 차분하게(mildly and with tranquillity) 이를 가다듬어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타의 근심거리들(cares)은 제쳐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유형의 경건 양식(some particular forms

of devotion)이 있다고 칩시다. 설사 그 자체로는 매우 유용한 것이라 한들, 거기에 무분별하게 몰두하는 경우가 잦다면, 우리는 그것조차 버려야합니다. 이런 경건의 형태들은 그 목표(end)에 이르게하는 수단(means)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우리의 목표(end)인 하나님과함께하게 되는데, 다시 그 수단(means)으로되돌아간다니쓸모없는일이지요. 그러나우리는 그의거룩한임재(His holy presence)를 유지하면서 사랑의 교제(commerce of love)로 그분과계속함께해야합니다. 누군가는 찬미(praise)와경배(adoration)혹은 간구의행위로, 누군가는 자기를 버리는(resignation)행위 내지 감사함(thanksgiving)으로, 우리영혼이연구해낼수있는모든방법으로말입니다.

그가운데 본성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반감(repugnance)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세요, 스스로를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lost time)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연습을 견뎌내겠다고 결심하세요.

당신의 거룩한 모임과, 특별히 당신의 기도에 의탁합니다.

우리주님 안에서 당신의 벗된자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uary =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1 동독본문 Reading Plan 잠연 Proverbs 1-2장

 3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

2

트잡기

1장은 잠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와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살의 원리 를 배우고, 하나남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연하고 있다. 2정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라면 찾 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 하다

잠언 2:1-1

6대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체명을 네게 가직하며

2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에서 내심이며

7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 ¹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 ²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 ³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 $^{\rm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 $^{7}\,\mbox{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 equity, every good path;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 11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¹²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7 말씀 속으로

>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Coal Manyors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독습니다.

③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영어와 안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③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②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③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대式이 탁상하기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분합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단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영커리지한안연합감리고회 금본제(AK) 기쁨의 교회, 정준식(AL) 한인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22

어택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장안의 히브라이 단어, '마산'은 '-와 같다', '비와'로 반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배탁등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장애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로는 이 는 '장에 말한 '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돌이 가르치는 일이만 뜻이 요. 슬로모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성을 깊이 관생하면서 일정한 배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명이서 슬로몬은 ''아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세들에게 건리하듯이 말하십니다. 권리 핵심은 '구하고 첫으나'는 겁니다. (이-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예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 7년)가, 지혜를 얻어 한다고 보 작가 지혜의 근원이십 아나는에게 주라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참여야 하고 보 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도 명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 보면 되었고 지혜를 구하거나 갖지 않는 자신을 말감하게 되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용하게 연기되는 일기 때문입니다.

참안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마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도 명월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만든 차는 구하고 찾 고 결국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 하나이 천하 주나는 선물이자(6 절). 그분이 지혜합니다. 즉 하나님을 때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알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으십시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el" and means "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it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file. In Chinese, it is "Ball Samfur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visi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fe when a father admonslash 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visi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visidom. We must raise our v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c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visi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visi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e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below. Web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a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⑤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 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 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 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 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 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 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4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 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 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 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모임 장소 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이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July

07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4	5	열왕기하 2 Kings 8장 □	6	열왕기하 2 Kings 9장 □
11	12	열왕기하 2 Kings 14장 □	13	열왕기하 2 Kings 15장 □
18	19	열왕기하 2 Kings 20장 🗆	20	열왕기하 2 Kings 21장 🗆
25	26	하박국 Habakkuk 1장□	27	하박국 Habakkuk 2장 □

WED	NESDAY	THU	RSDAY		FRIDAY	SA	TURDAY
		1	열왕기하 2 Kings 5장 ロ	2	열왕기하 2 Kings 6장 □	3	열왕기하 2 Kings 7장 □
7	열왕기하 2 Kings 10장 □	8	열왕기하 2 Kings 11장 □	9	열왕기하 2 Kings 12장 □	10	열왕기하 2 Kings 13장 □
14	열왕기하 2 Kings 16장 □	15	열왕기하 2 Kings 17장 🗆	16	열왕기하 2 Kings 18장 □	17	열왕기하 2 Kings 19장 □
21	열왕기하 2 Kings 22장 □	22	열왕기하 2 Kings 23장 □	23	열왕기하 2 Kings 24장 □	24	열왕기하 2 Kings 25장 □
28	하박국 Habakkuk 3장 □	29	스바냐 Zephaniah 1장 ロ	30	스바냐 Zephaniah 2장 ロ	31	스바냐 Zephaniah 3장 ロ
				S M T 1 6 7 8 13 14 15	2 3 4 5 9 10 11 12 5 16 17 18 19 2 23 24 25 26	S M T 1 2 3 8 9 10 15 16 17	August W T F S 4 5 6 7 11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열왕기서 하박국 스바냐

열왕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열왕기상하는 룻기 다음 사무엘상하 뒤에 나오는데, 내용의 흐름은 가나안 정착 후의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새 왕정시 대의 사울과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탈무드 전승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썼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신명기계 역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으로부터 멸망해서 가나안 땅을 잃게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신명기계 역사서의 기록이유는?

열왕

열왕기에는 각 왕들의 치적이 일정한 도식으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요시아 왕이 가장 칭찬받았고, 므낫세 왕이 가장 나쁜 평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기준은 정치경제적 역량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입니다. 결국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분만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여 잘 사는 길임을 포로기 시대의 공동체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다른 역사서같이 '사실'을 비판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정리된 '신학적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왕기 : 신명기적 사관	역대기 : 역대기적 사관
・선지자적 관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역사 기록 ・"범죄→징계→회개→구원"의 역사 반복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적 관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회개하고 성전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해야한다 •남 유다 역사만 기록 •역사가 주는 영적교훈-성전과 예배가 중요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하박국은 어떤 책인가요?

하박국은 12 소예언서 중에서 여덟 번째 책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합바쿠쿠 내지 함바쿠쿠'란 정원식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1:1) 내지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3:1)라는 정보와 성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전의 제의 예언자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역사적 상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앗시리아의 산혜립 왕이 유다를 침입한 기원전 8세기 말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근동 지역을 점령한 기원전 4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내가 바빌론을 일으키리니"(1:6)란 내용으로 미루어 7세기 말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시기, 요시아(기원전 640-609)통치 말기부터 여호야김(기원전 609-598)내지 여호야긴(기원전 598)시절을 추정합니다.

하박국을 기록한 이유는?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드디어 유다 왕국은 독립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앗시리아 쇠퇴기에 즉위한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은 개혁을 통해 그 기반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방의 애굽왕 느고와의 므깃도 전투(기원전 609)에서 요시아가 전사함으로 유다는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가, 여호야김 시절 신바벨론 군대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문서에는 하박국 1-2장이 포함되었는데, 공동체가 바라본 시대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도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다 왕국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를 깊이 생각할수 있는 예언서입니다.

1장 **세상불행에 대한 탄원과 하나님의 심판**

2장 **압제자에게 화 있을진저 - 하나님의 답**

3장**하박국의 기도-시편**

스바냐는 어떤 책인가요?

스바냐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아홉 번째로 나오는 성서. 예언 자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내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린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 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내용과 잘 어 울리는 이름입니다.

스바냐는 누구인가요?

스바냐

예언자 스바냐(1:1)는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에 이르는 족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가 왕족이며, 기존 정치와 종교권의 내부에 있던 개혁주의 선지자였으리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스바냐의 왕손설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원전 8세기에 활약했던 이사

야나 미가의 예언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스바냐 3:1-3 vs 이사야 1:21-23; 스바냐 3:3-5 vs 미가 3.1-12).

스바냐는 왜 썼나요?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기원전 715-687)는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수는 등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일련의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 므낫세(기원전 687-642)와 아몬(기원전 642-640) 왕의 혼합주의 정책은 바알을 섬기는 예식이 다시 성행하게 하고(1:4),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암몬신 말감에게 맹세하는 등(1:5) 우상숭배가 백성 사이에 널리 퍼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는 압제와 억압 현상이 뿌리내리게 되었고(3:1-4)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든 주변 국가든 거만을 떨며 흥청거리는 자는 모두 쓸어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화를 면할 것을 선포합니다.

1장 여호와의 날 - 진노와 심판

2장 회개하라 - 심판이 다가온다

3장 심판과 가난한 백성을 위한 약속

참고도서:

독일성서공회해설성경/대한성서공회, 뉴인터프리터스스터디성경/애빙돈, 구약성서개론/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성서해설

July 목 Thu

나아만이 고침 받다

Naaman is cur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5장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는 사건과 엘리사 의 사환 게하시가 오히려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방인 나아만의 순종하는 믿음과 선지자의 종 게하시의 죄악이 대조되고 있다.

열왕기하 5:8-19

- 8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리이다 하니라
- 9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에서니
- 10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 11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 12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 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 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 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 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 14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 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 게 되었더라
- 15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 는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 16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 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 17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 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 나이다
-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 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 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 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 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 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Reading insight

This chapter records the story of Naaman,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being cured of leprosy and Gehazi, the servant of Elisha, being afflicted with leprosy. It depicts the contrast between the obedient faith of gentile Naaman and the sins of Gehazi, servant of the prophet Elisha.

2 Kings 5:8-19

- 8 But when Elisha the man of God heard that the king of Israel had torn his clothes, he sent to the king, saying, "Why have you torn your clothes? Let him come now to me, that he may know that there is a prophet in Israel."
- 9 So Naaman came with his horses and chariots and stood at the door of Elisha's house.
- 10 And Elisha sent a messenger to him, saying,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and you shall be clean."
- 11 But Naaman was angry and went away, saying, "Behol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 12 Are not Abana and Pharpar, the rivers of Damascus, better than all the waters of Israel? Could I not wash in them and be clean?" So he turned and went away in a rage.
- 13 But his servants came near and said to him, "My father, it is a great word the prophet has spoken to you; will you not do it? Has he actually said to you, 'Wash, and be clean'?"
- 14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 15 Then he returned to the man of God, he and all his company, and he came and stood before him. And he said, "Behold,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earth but in Israel; so accept now a present from your servant."
- 16 But he said, "As the LORD lives, before whom I stand, I will receive none." And he urged him to take it, but he refused.
- 17 Then Naaman said, "If not, please let there be given to your servant two mules' load of earth, for from now on your servant will not offer burnt offering or sacrifice to any god but the LORD.
- 18 In this matter may the LORD pardon your servant: when my master goes into the house of Rimmon to worship there, leaning on my arm, and I bow myself in the house of Rimmon, when I bow myself in the house of Rimmon, the LORD pardon your servant in this matter."
- 19 He said to him, "Go in peace." But when Naaman had gone from him a short distan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5:11) Why was Naaman commander of the army angry at Elisha? (5:11)

노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나 아만에게 종들은 무엇이라고 설 득했습니까? (5:13)

How did the servants of Naaman persuade him to follow Elisha's instructions? (5:13)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내 생각에는… I thought…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서 어긋난 일이 생기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이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그가 지닌 나병은 그에게 취약한 부분이었다. 나병환자가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케 하심으로 그를 크게 하셨다(5:1).그리고 그에게 나병을 주심으로 낮추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도록 하셨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었다. 나병을 고침 받기 위해 예물을 잔뜩 준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대접을 선지자에게서 받는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보러 나오지도 않고 예물을 받지도 않았다. 다만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했다.

이에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5:11). 다행히 종들의 설득으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일곱 번몸을 씻은 후에 나병이 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사람들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People usually panic when things do not go the way they expect. Naaman,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encountered such a case. Naaman was a great man in the sight of his master and highly regarded, but his leprosy was his weakness. His leprosy was not by accident but was planned by God. The LORD had given victory to Aram through Naaman and made him a great man. (5:1) But God gave him leprosy to lower him and made him seek Elisha the prophet of Israel

Naaman had to overcome several obstacles in order to experience what God had in store for him. He had to tune his thoughts to God's. Naaman visited the prophet Elisha with large amounts of precious gifts to seek a cure from him but was treated differently from what he had expected. The prophet Elisha did not bother to come out to greet Naaman and did not accept any gift. But Naaman was told through a messenger to go to the Jordan river and wash his body seven times. Naaman went away angry and said, "I though...", he thought that Elisha would come out to him and wave his hand over the spot and cure him of his leprosy. (2 Kings 5: 11) Fortunately for him, Naaman was persuaded by his servants and followed the advice of the prophet and washed his body seven times in the Jordan river. His leprosy was cured. Only then did Naaman understand and praise the LORD. In order to experience God's plan for us, we need to abandon our thoughts, discern and accept God's thoughts, and live accordingly. People of God are those who discern and accept God's thoughts. Only then we can experience the grace of God according to His pla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금 Fri

사마리아에서의 아람 군대

Aramean army in Samaria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6장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그 리고 아람왕이 엘리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를 잡으려 군사를 보냈다가 벌어지는 사건이 이어진다.

열왕기하 6:8-20

- 8 그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 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 지라
- 10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 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 11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 느냐하니
- 12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 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 엨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 13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 14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화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 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 18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워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 19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 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 20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Reading insigh

This chapter records the story of Elisha who made an iron ax head float in the water. Also recorded is what happened when the King of Aram realized Elisha was a threat to Aram and sent the Aramean army to arrest Elisha.

2 Kings 6:8-20

- ⁸ Once when the king of Syria was warring against Israel, he took counsel with his servants, saying, "At such and such a place shall be my camp."
- 9 But the man of God sent word to the king of Israel, "Beware that you do not pass this place, for the Syrians are going down there."
- 10 And the king of Israel sent to the place about which the man of God told him. Thus he used to warn him, so that he saved himself there more than once or twice.
- 11 And the mind of the king of Syria was greatly troubled because of this thing, and he called his servants and said to them, "Will you not show me who of us is for the king of Israel?"
- 12 And one of his servants said, "None, my lord, O king; but Elisha, the prophet who is in Israel, tells the king of Israel the words that you speak in your bedroom."
- 13 And he said, "Go and see where he is, that I may send and seize him." It was told him, "Behold, he is in Dothan."
- 14 So he sent there horses and chariots and a great army, and they came by night and surrounded the city.
- 15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went out, behold, an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was all around the city. And the servant said, "Alas, my master! What shall we do?"
- 16 He said, "Do not be afraid, for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 17 Then Elisha prayed and said, "O LORD, please open his eyes that he may see." So the LORD opened the eyes of the young man, and he saw, and behold, the mountain wa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 18 And when the Syrians came down against him, Elisha prayed to the LORD and said, "Please strike this people with blindness." So he struck them with blindness in accordance with the prayer of Elisha.
- 19 And Elisha said to them, "This is not the way, and this is not the city. Follow me, and I will bring you to the man whom you seek." And he led them to Samaria.
- 20 As soon as they entered Samaria, Elisha said, "O LORD, open the eyes of these men, that they may see." So the LORD opened their eyes and they saw, and behold, they were in the midst of Samaria.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엘리사의 사환이 절망했던 이유 는 무엇입니까? (6:15) Why did Elisha's servant despair? (6:15)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평안을 얻었던 적은 언제 인가요?

When did you feel that you received peace and comfort from the LORD as you were assured of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

못보는 자의 두려움과 자신감

Fear and confidence of the blind

우리의 눈은 얼마나 의지할 만 한가? 아람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한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은 그 둘러싼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 군사를 보고 절망한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6:16)고 말하며,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자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오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 달라고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엘리사의 사환의 두려움은 영적인 눈의 어둠에서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실상을 보게 되니 두려움은 사라진다. 아람 군대는 영적으로 어둡기에 담대하기만 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람 군대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두려움에 빠뜨리셨다.

오늘 우리가 두렵다고 여기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히브리서 11:1).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How reliable are our eyes? The King of Aram mobilized forces to capture the prophet Elisha. When the servant of the prophet saw the city surrounded by horses and chariots and the army, he despaired. But Elisha said, "Don't be afraid," (6:16) and he prayed to God to open the eyes of his servant. Then the spiritual eyes of the servant were open and he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Then as the enemy came down toward him, Elisha prayed to the LORD,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 So He struck them with blindness, and they could not see.

The fear of Elisha's servant came from the blindness of his spiritual eyes. When his spiritual eyes were open and he could see the reality, his fear vanished. Though they should be fearful, the Aramean army was belligerent because they were spiritually blind. But God made them physically blind and their blindness caused them to be fearful.

What is the existential cause of our fear today? May it be because we do not see the army of God that protects us? Though our physical eyes may not see it,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Hebrews 11:1) When we trust the Word of God and follow His teachings, our spiritual eyes will be opened and we can see what God is actually do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토 Sat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다

The City of Samaria is redeem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7장



새498장(통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가운데 사마리아 성은 기 근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 보내 심으로 사마리아성이 구원을 받는다.

열왕기하 7:1-10

- 1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 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 2 그 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 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 3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 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 4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 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 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 5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 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 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혯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 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 7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 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 8 그 나병화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 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 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 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 10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Reading insigh

As King Ben-Hadad of Aram surrounded Samaria, the inhabitants of Samaria suffered from famine. But Samaria was saved because the Aramean army was forced to retreat by God.

2 Kings 7:1-10

- ¹ But Elisha said, "Hear the word of the LORD: thus says the LORD, Tomorrow about this time a seah of fine flour shall be sold for a shekel, and two seahs of barley for a shekel, at the gate of Samaria."
- ² Then the captain on whose hand the king leaned said to the man of God, "If the LORD himself should make windows in heaven, could this thing be?" But he said, "You shall see it with your own eyes, but you shall not eat of it."
- 3 Now there were four men who were lepersat the entrance to the gate.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Why are we sitting here until we die?
- 4 If we say, 'Let us enter the city,' the famine is in the city, and we shall die there. And if we sit here, we die also. So now come, let us go over to the camp of the Syrians. If they spare our lives we shall live, and if they kill us we shall but die."
- 5 So they arose at twilight to go to the camp of the Syrians. But when they came to the edge of the camp of the Syrians, behold, there was no one there.
- 6 For the Lord had made the army of the Syrians hear the sound of chariots and of horses, the sound of a great army, so that they said to one another, "Behold, the king of Israel has hired against us the kings of the Hittites and the kings of Egypt to come against us."
- 7 So they fled away in the twilight and abandoned their tents, their horses, and their donkeys, leaving the camp as it was, and fled for their lives.
- 8 And when these lepers came to the edge of the camp, they went into a tent and ate and drank, and they carried off silver and gold and clothing and went and hid them. Then they came back and entered another tent and carried off things from it and went and hid them.
- **9** Then they said to one another, "We are not doing right.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If we are silent and wait until the morning 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Now therefore come; let us go and tell the king's household."
- 10 So they came and called to the gatekeepers of the city and told them, "We came to the camp of the Syrians, and behold, there was no one to be seen or heard there, nothing but the horsestied and the donkeys tied and the tents as they we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병환자들은 아람 군대의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을 왜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까? (7:9)

Why couldn't the men with leprosy wait until daylight to report the status of the Aramean army to Israel? (7:9)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에 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를 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ith whom does God want you to share the message of salvation?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GA)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라 Share the salvation of God

찰스 스펄전은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빵은 다른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 굶주림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 계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아람 군대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내버리고 황급하게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의 손에서 이미 구원하셨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성문 밖에 있는 나병환자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그들은 배고파 죽기 전에 식량이 있는 아람 군대로 가서 구걸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 진영을 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나병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음식과 물건들을 취하면서 그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내일까지 미루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사마리아성은 그 구원을 누린다.

나병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이 아람 군대로 항하게 하신 것이 자신들의 부유함만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라는 뜻임을 깨달었다. 나의 부유함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나만 누리기 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를 나누라는 뜻이기도하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를 드러내는 나병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Charles Spurgeon expounded figuratively, "Evangelism is just one beggar telling another beggar where to find bread." Even though God gave us the bread, if there was no messenger to deliver the message about the bread, the bread given by God would be non-existent to others. The city of Samaria was besieged by the Aramean army and suffered severe famine. Some even ended up eating their own child. At that moment, God brought salvation to the people of Israel. The LORD caused the Aramean army to hear the sound of chariots and horses and a great army. The Aramean army was so afraid that they abandoned everything and fled in a hurry. God had already redeemed Israel from the Aramean army. But not knowing it, Israel was still dying in the city. Even though the salvation of God was at the door, if people do not know that, they cannot experience the salvation. But then God moved the minds of those men with leprosy who were just outside of the city gate. They thought it better to beg for food to the Aramean army than die of hunger sitting where they were and made a move to go to the camp of Aramean army There they saw the salvation of God. The men with leprosy took the food and other things abandoned by the Aramean army but felt guilty and thought that the punishment would overtake them if they waited until daylight to report what they had found at the camp. So they rushed back to Samaria that night to report the news of salvation, and the people of Samaria celebrated their salvation. The men with leprosy understood that God had directed their minds toward

The men with leprosy understood that God had directed their minds toward the Aramean army not only to enrich their own needs but also to share the salvation of God with others. My own richness is not only my blessing for me to enjoy but also to share the salvation and prosperity with others. God wants us to live like the men with leprosy who shared the salvation of God and prosperity with oth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O4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배속(倍速) 예배

백승린 목사(템파한인연합감리교회)

동료 목사가 아들과 토론한 고민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빠의 온라인 예배 설교 속도가 너무 느려서 2배속으로 들어도 되냐고 묻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 고속으로 동영상을 빨리 돌려 보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예배를 30분 만에 '볼' 수 있으니 효과적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2배속에 적응하면 3배속, 4배속 예배도 가능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예배를 보는(watching)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교인들이 화면 앞에 앉아서 '보는' 예배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한자로 예배(禮拜)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예배하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Worship은 가치 (Worthy)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단어인 Service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내가 서비스받는 것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자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참 어렵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인칭 '당신'은 존댓말입니다. 하지만 2인칭인 상대방에게 "당신이 뭔데" 하면 시비 거는 것

입니다. 나와 상대방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부릅니다. 높여야 할 대상에게는 '저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비록 높여야 할 대상 앞이라 해도, 그 대상이 같은 범주 안에 있으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울(울타리)'에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이 나와 동년배나 아랫사람이면 '우리' 나라로 말해도 됩니다. 만일 다른 나라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저희' 나라로 표현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같은 나라 사람에게는 '우리' 나라로 써야합니다. "선생님, '저희' 나라 역사를 설명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나라 역사라고 해야합니다. 갑자기 국어 교실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로 표현하면된다는말을 하려고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다.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serve) 않고, 예배를 보고(watching)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시편 51:17).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July 월 Mon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

The prophecy of Elisha about Haz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8장



새338장(통364장) 내 주를 가까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엘리사의 조언대로 기근을 피하였다가 돌아온 수넴여인이 모든 소유를 회복한다.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신다.

열왕기하 8:7-15

- 7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 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 8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 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 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 9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 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사십 마리에 싣고 나 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 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 10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 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 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 11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 을 쏘아보다가 우니
- 12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 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 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배 부녀를 가르리 라하니
- 13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 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 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 라 하더라
- 14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 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 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 15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 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 woman of Shunem fled to escape from the famine as advised by Elisha but returned after the famine and recovered all her possessions. God had foretold Elisha and he prophesied that Hazael would be anointed and made the king of Aram.

2 Kings 8:7-15

- 7 Now Elisha came to Damascus. Ben-hadad the king of Syria was sick. And when it was told him, "The man of God has come here."
- 8 the king said to Hazael, "Take a present with you and go to meet the man of God, and inquire of the LORD through him, saying, 'Shall I recover from this sickness?"
- 9 So Hazael went to meet him, and took a present with him, all kinds of goods of Damascus, forty camel loads. When he came and stood before him, he said, "Your son Ben-hadad king of Syria has sent me to you, saying, 'Shall I recover from this sickness?"
- 10 And Elisha said to him, "Go, say to him, 'You shall certainly recover,' but the LORD has shown me that he shall certainly die."
- 11 And he fixed his gaze and stared at him, until he was embarrassed. And the man of God wept.
- 12 And Hazael said, "Why does my lord weep?" He answered, "Because I know the evil that you will do to the people of Israel. You will set on fire their fortresses, and you will kill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and dash in pieces their little ones and rip open their pregnant women."
- 13 And Hazael said, "What is your servant, who is but a dog, that he should do this great thing?" Elisha answered, "The LORD has shown me that you are to be king over Syria."
- 14 Then he departed from Elisha and came to his master, who said to him, "What did Elisha say to you?" And he answered, "He told me that you would certainly recover."
- 15 But the next day he took the bed cloth and dipped it in water and spread it over his face, till he died. And Hazael became king in his pl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엘리사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8:12) Why did Elisha weep? (8:12)

당신은 이 땅에 행해진 죄악 가 운데 어떤 것으로 인해 특별히 마음 아파하였습니까?

What particular sin of the world causes your heart to ache?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엘리사의 눈물 Elisha weeps

멜 깁슨 감독의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에서 커다란 물덩이가 떨어져 땅을 뒤흔드는 장면이 있다. 아마도 이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아람왕 벤하닷은 병이 들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 하사엘을 보낸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가서 그가 반드시 나으리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리고 실상은 벤하닷이 반드시죽을 것이라고 하사엘에게 말한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얼굴을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약한 일 때문이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짓밟힐 이스라엘의 참혹함을 보면서 엘리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의로 벌해야 했던 하나님의 애통함이 엘라사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은 하사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눈물 흘리신다. 하나님을 눈물흘리게 할 죄악들이 이 땅에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movie titled "Passion of Christ' directed and produced by Mel Gibson, there is a scene in which a gigantic bundle of water falls from heaven onto the ground and the whole ground is shaken. Perhaps it was to be meant to symbolize the weeping of God saddened by the death of His son. As King Ben-Hadad of Aram became ill, he dispatched Hazael to prophet Elisha to ask what would happen to him in the future. Elisha told Hazael, "Go and say to Ben-Hadad, 'You will certainly recover'; but the LORD has revealed to me that he will in fact die." Then Elisha kept staring at Hazael until he felt embarrassed and Elisha wept.

Elisha wept because of all the evil that Hazael would inflict in the future on the descendants of Israel. Elisha knew that Hazael would set fire to their fortified places, kill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dash their little children to the ground, and rip open their pregnant women. And when Elisha saw Israel being savagely trampled by Hazael, he could not help but weep. The tears of the prophet are like spokesmen for the mind and tears of God. God's heart was aching because His justice called for punishment of His own people and that was the cause of Elisha's tears. What caused God's heart to ache was not Hazael but the people of Israel. God weeps when His people are fraught with sins. Though this land is full of sins that would make God weep, we the people of God should be the object of God's joy by wiping away the tears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화 Tue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예후

Jehu anointed as King of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9장



새410장(통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엘리사의 소년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예후는 하나 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가문을 진멸한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요람을 보러 온 유다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을 죽인다.

열왕기하 9:6-17

- 6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 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 으로 삼노니
-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놓 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 9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 10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 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 하니라
- 11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 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 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 12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 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 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 13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 14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 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 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 15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 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 서 도망하여 이스르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 16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 왔더라
- 17 이스르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 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 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 냐 문게 하라 하는지라

Jehu was anointed by the young prophet of Elisha, and Jehu decimated Ahab and his household according to the command of God. Jehu killed King Joram of Israel, King Ahaziah of Judah who was visiting Joram, and Jezebel.

2 Kings 9:6-17

- 6 So he arose and went into the house. And the young man poured the oil on his head, saying to him,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I anoint you king over the people of the LORD, over Israel.
- ⁷ And you shall strike down the house of Ahab your master, so that I may avenge on Jezebel the blood of my servants the prophets, and the blood of all the servants of the LORD.
- 8 For the whole house of Ahab shall perish, and I will cut off from Ahab every male, bond or free, in Israel.
- And I will make the house of Ahab like the house of Jeroboam the son of Nebat, and like the house of Baasha the son of Ahijah.
- 10 And the dogs shall eat Jezebel in the territory of Jezreel, and none shall bury her." Then he opened the door and fled.
- 11 When Jehu came out to the servants of his master, they said to him, "Is all well? Why did this mad fellow come to you?" And he said to them, "You know the fellow and his talk."
- 12 And they said, "That is not true; tell us now." And he said, "Thus and so he spoke to me, saying, 'Thus says the LORD, I anoint you king over Israel."
- 13 Then in haste every man of them took his garment and put it under him on the bare steps, and they blew the trumpet and proclaimed, "Jehu is king."
- 14 Thus Jehu the son of Jehoshaphat the son of Nimshi conspired against Joram. (Now Joram with all Israel had been on guard at Ramoth-gilead against Hazael king of Syria,
- 15 but King Joram had returned to be healed in Jezreel of the wounds that the Syrians had given him, when he fought with Hazael king of Syria.) So Jehu said, "If this is your decision, then let no one slip out of the city to go and tell the news in Jezreel."
- 16 Then Jehu mounted his chariot and went to Jezreel, for Joram lay there. And Ahaziah king of Judah had come down to visit Joram.
- 17 Now the watchman was standing on the tower in Jezreel, and he saw the company of Jehu as he came and said, "I see a company." And Joram said, "Take a horseman and send to meet them, and let him say, 'Is it pe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 시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7-8)

Why did God want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9:7–8)

당신은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평안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Are you at peace with God? Is there anyone with whom you need to be at peace?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응(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평안하냐?

Do you come in peace?

아합왕은 악명 높은 사람이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과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종과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겠다고 하셨다(9:7). 예수님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마 10:41), 아합의 가문은 상 받을 기회를 저주로 바꾸어 버렸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치기 시작한다. 예후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르 엘에 있는 자신의 왕 요람왕을 찾아간다. 요람은 멀리서 보이는 병거를 탄 사람이 누구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은 예후에게 묻는다. "왕께서 묻는데, 평안하냐?" 이에 예후는 말한다.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왕이 다른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도 예후가 평안을 위해 오고 있는지를 묻는다.

요람왕은 병거를 타고 오는 자가 자신의 신복 예후인 것을 알고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는다. 요람이 묻는다.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답한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을 한 예후는 도망가는 요람왕을 활로 쏴서 죽인다.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러 찾았을 때에 이세벨도 예후에게 묻는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아합의 가문은 평안을 바라지만 하나님과 대적한 그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자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이세벨과 같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안한 자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King Ahab was notoriously infamous. Ahab and his wife Jezebel opposed God and persecuted people of God. And God said that He would avenge the blood of His servants the prophets and the blood of all the LORD's servants shed by Jezebel. (9:7) Jesus said anyone who received the prophet would receive the reward of the prophet (Matthew 10:41), but the household of Ahab turned the opportunity of reward into a curse. Jehu began to execute the command of God by attacking the house of Ahab. Jehu came to his own King Joram who was staying in Jezreel after being wounded during war with Aram. Joram sent a horseman to check who was riding on a chariot among the troops coming at a distance. They asked Jehu, "This is what the king says: 'Do you come in peace?'" Jehu replied, "What do you have to do with peace? Fall in behind me." Then Joram sent another horseman to Jehu and asked the same question if he came in peace.

Joram recognized that the man on the chariot was Jehu his subordinate and Joram rode out in his own chariot to meet him. Joram asked, "Have you come in peace, Jehu?" Jehu replied, "How can there be peace, as long as all the idolatry and witchcraft of your mother Jezebel abound?" After this exchange, Joram who was running away was shot and killed by Jehu with his bow. When Jehu found Jezebel to punish, she asked the same question, "Have you come in peace, Zimri, you murderer of your master?"

The house of Ahab wanted peace but because their family opposed God, they could not have peace. God did not allow peace to those who killed the servants of God and corrupted the people of God. Our peace is possible only when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econciled. Though our peace is sometimes confiscated by someone like Jezebel, only those who do not give up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re reconciled, and maintain peace with God can enjoy pe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드 first mamont D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수 Wed

예후의 숙청 작업

Jehu's purge operat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0장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후에 의한 아합가문의 숙청이 지속된다. 아합의 자손들 70명과 유다왕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 및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처형 한다.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자들을 한 신전에 모이도록 하여 그 들을 처형한다.

열왕기하 10:11-19

- 11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 받는 자들과 제사장 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 12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 13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 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 라 하는지라
- 14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 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사십이 명이 하나도 낚지 아 니하였더라
- 15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 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 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 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 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 16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 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 17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 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 18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 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 19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 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 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 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Jehu continued the purge of the house of Ahab. Jehu killed seventy members of the house of Ahab, King Ahaziah of Judah, Ahaziah's relatives, as well as everyone related to Ahab. Jehu also gathered all the worshippers of Baal into a temple and massacred them.

2 Kings 10:11-19

- 11 So Jehu struck down all who remained of the house of Ahab in Jezreel, all his great men and his close friends and his priests, until he left him none remaining.
- 12 Then he set out and went to Samaria. On the way, when he was at Beth-eked of the Shepherds,
- 13 Jehu met the relatives of Ahaziah king of Judah, and he said, "Who are you?" And they answered, "We are the relatives of Ahaziah, and we came down to visit the royal princes and the sons of the queen mother."
- 14 He said, "Take them alive." And they took them alive and slaughtered them at the pit of Beth-eked, forty-two persons, and he spared none of them.
- 15 And when he departed from there, he met Jehonadab the son of Rechab coming to meet him. And he greeted him and said to him, "Is your heart true to my heart as mine is to yours?" And Jehonadab answered, "It is." Jehu said, "If it is, give me your hand." So he gave him his hand. And Jehu took him up with him into the chariot.
- 16 And he said, "Come with me, and see my zeal for the LORD." So he had him ride in his chariot.
- 17 And when he came to Samaria, he struck down all who remained to Ahab in Samaria, till he had wiped them out,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to Elijah.
- 18 Then Jehu assembled all the people and said to them, "Ahab served Baal a little, but Jehu will serve him much.
- 19 Now therefore call to me all the prophets of Baal, all his worshipers and all his priests. Let none be missing, for I have a great sacrifice to offer to Baal. Whoever is missing shall not live." But Jehu did it with cunning in order to destroy the worshipers of Baa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후와 그 일을 같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15, 23) Who collaborated with Jehu? (10:15, 23)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What kind of work are you zealous for in your relation ship with God?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내 열심을 보라 Look at my zeal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 예후를 세우셨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데 끔찍할 만큼 철저하게 수행한다. 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에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며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 예후의 열심은 아합의 가문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향한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신전에 불러 모은후 예후는 그들을 모두 죽인다. 그리고 그 신전은 변소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도 예후의 열심을 인정하셨는지, 그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고하신다.

그런데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을 내지 못했다. 도리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 하였다 (10:29, 31).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거울삼아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가문을 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보고 배웠어야 했다.

예후는 다른 이들을 멸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제 대로 따르는 일에는 실패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 게 되면 그 열심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기에 열심을 내고, 그 뜻을 행하기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God had chosen Jehu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Jehu executed the command of God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with thoroughness and severe savagery. When he came upon Jehonadab son of Recab, he greeted him and said, "Come with me and see my zeal for the LORD." Then he had him ride along in his chariot and continued the execution of God's command. The zeal of Jehu not only destroyed the house of Ahab but also was directed toward the Baal worshippers. Jehu invited all Baal worshippers to an assembly at the temple of Baal disguised as worship to Baal and massacred them. Then the temple was turned into a latrine. God approved of Jehu's zeal and proclaimed that Jehu's descendants would sit on the throne of Israel to the fourth generation.

Jehu showed all the zeal in routing the house of Ahab but he failed to exercise the same zeal in serving Almighty God.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which he caused Israel to commit. He sinned against God by worshipping the golden calves at Bethel and Dan. (10:29, 31) There is a lion acronym called "BanMyunGyoSa". It means "A teacher who preaches the opposite view," and also means that one learns by observing the faults of others. As Jehu destroyed the house of Ahab in accordance with the command of God, he should have learned by observing directly what a tragic result opposing God would bring. Jehu was zealous in routing others, but he failed to reform himself and follow God rightly. We can be zealous in what we do, but if our zeal is against the will of God, our zeal will turn into a shortcut to destruction. People of God should be zealous in discerning the will of God and dedicate themselves to faithfully do the will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예수님을 성	니까?
-1 -1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목 Thu

아달라의 죽음과 요아스의 즉위

The death of Athaliah and Joash's ascent to the thron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1장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아달랴가 왕을 이을 왕자들을 살해하고 남유다의 왕이 된다. 아달랴의 만행 속에서 살아남은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주도로 왕으로 즉위하고 아달랴는 죽음을 당 하다.

열왕기하 11:11-20

-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 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 12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 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 13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 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 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 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 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 16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 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 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 을 세우게 하매
- 18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 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 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 19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 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 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 좌에 앉으니
- 20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 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Upon watching the death of her son King Ahaziah, Athaliah murdered all the princes and secured the throne of southern Judah. Joash survived Athaliah's savage massacre. Six years later with the help of Jehoiada the priest, he was made king and Athaliah was killed.

2 Kings 11:11-20

- 11 And the guards stood, every man with his weapons in his hand, from the south side of the house to the north side of the house, around the altar and the house on behalf of the king.
- 12 Then he brought out the king's son and put the crown on him and gave him the testimony. And they proclaimed him king and anointed him, and they clapped their hands and said, "Long live the king!"
- 13 When Athaliah heard the noise of the guard and of the people, sh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to the people.
- 14 And when she looked, there was the king standing by the pillar, according to the custom, and the captains and the trumpeters beside the king,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rejoicing and blowing trumpets. And Athaliah tore her clothes and cried, "Treason! Treason!"
- 15 Then Jehoiada the priest commanded the captains who were set over the army, "Bring her out between the ranks, and put to death with the sword anyone who follows her." For the priest said, "Let her not be put to death in the house of the LORD."
- 16 So they laid hands on her; and she went through the horses' entrance to the king's house, and there she was put to death.
- 17 And Jehoiada made a covenant between the LORD and the king and people, that they should be the LORD's people, and also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
- 18 Then all the people of the land went to the house of Baal and tore it down; his altars and his images they broke in pieces, and they killed Mattan the priest of Baal before the altars. And the priest posted watchmen over the house of the LORD.
- 19 And he took the captains, the Carites, the guards,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they brought the king down from the house of the LORD, marching through the gate of the guards to the king's house. And he took his seat on the throne of the kings.
- 20 So all the people of the land rejoiced, and the city was quiet after Athaliah had been put to death with the sword at the king's hou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 으로 세울 때에 그에게 무엇을 주 었습니까? (11:12)

When Jehoiada the priest anointed Joash as king what did he give Joash? (11:12)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맺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17)

What did Jehoiada want to make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southern Judah? (11:17)

God Moment

언덕위의 소리

인약 제우기 Making a covenant

아합가문의 몰락은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온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친정이 몰락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마저 예후에게 죽는 것을 본 후, 그녀는 남유다의 다윗의 왕가를 멸하고자 한다. 그녀는 남유다의 왕을 이을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남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린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를 구한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서 육년 동안 왕자를 숨겨 길렀다. 그리고 칠 년째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리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연합하여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왕권을 회복한다.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주된 역할은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11:17). 그러기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언약의 말씀인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가문 이후 예후의 왕권이 세워졌다면, 여호야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The fall of the house of Ahab had an impact on southern Judah. Athaliah came to southern Judah to marry but saw the fall of the house of her father in northern Israel as well as the fall of her own son Ahaziah king of southern Judah by Jehu. She decided to destroy the house of David in southern Judah. She murdered all the princes who could have been heirs to the throne, secured the throne for herself, and reigned southern Judah for six years. But the promise of God toward David was rock solid. In the middle of the massacre by Athaliah, the sister of King Ahaziah Jehosheba had hidden prince Joash and saved him. Together with her husband Jehoiada the priest they hid and raised Joash in the temple for six years. In the seventh year, Jehoiada the priest organized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the Carites, and the guards and made Joash the king. Athaliah was killed and the throne restored.

Jehoiada's primary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Joash the king was to make a covenant. He made a covenant between the LORD and the king and the people that they would be the LORD's people. He also made a covenant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 (11:17) Hence when Jehoiada anointed Joash as king, he gave Joash a Book of Laws which was the word of covenant. As the house of Jehu became the royal family in northern Israel after the house of Ahab, Jehoiada wanted to make southern Judah a nation ruled by God by restoring the covenant with God.

People of God should not forget that there is a covenant between themselves and God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s we live as people of God, God takes care of His people and leads His people to the right path.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최현규(HI)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H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든 예수는			습니	까?
첫기5	_ _ first	mom	ent	Prav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9

July 금 Fri

요아스의 통치

Reign of Joas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2장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남유다를 다스리며 성 전 수리를 지시한다.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 요아 스는 신복들의 반역으로 살해된다.

열왕기하 12:4-15

- 4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 5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 6 요아스 왕 제이십삼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 7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 8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 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 9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 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 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 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 10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 11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 12도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 13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 14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 15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아 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King Joash reigned southern Judah with the guidance of Jehoiada the priest and ordered the repair of the temple. King Hazael of Aram attacked Jerusalem. King Joash was assassinated by his officials who conspired against him.

2 Kings 12:4-15

- ⁴ Jehoash said to the priests, "All the money of the holy things that is brought into the house of the LORD, the money for which each man is assessed--the money from the assessment of persons--and the money that a man's heart prompts him to bring into the house of the LORD.
- ⁵ let the priests take, each from his donor, and let them repair the house wherever any need of repairs is discovered."
- 6 But by the twenty-third year of King Jehoash, the priests had made no repairs on the house.
- 7 Therefore King Jehoash summoned Jehoiada the priest and the other priests and said to them, "Why are you not repairing the house? Now therefore take no more money from your donors, but hand it over for the repair of the house."
- 8 So the priests agreed that they should take no more money from the people, and that they should not repair the house.
- ⁹ Then Jehoiada the priest took a chest and bored a hole in the lid of it and set it beside the altar on the right side as one entere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priests who guarded the threshold put in it all the money that was brought into the house of the LORD.
- 10 And whenever they saw that there was much money in the chest, the king's secretary and the high priest came up and they bagged and counted the money that was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 11 Then they would give the money that was weighed out into the hands of the workmen who had the oversight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y paid it out to the carpenters and the builders who worked on the house of the LORD,
- 12 and to the masons and the stonecutters, as well as to buy timber and quarried stone for making repairs on the house of the LORD, and for any outlay for the repairs of the house.
- 13 But there were not made for the house of the LORD basins of silver, snuffers, bowls, trumpets, or any vessels of gold, or of silver, from the money that was brought into the house of the LORD,
- 14 for that was given to the workmen who were repairing the house of the LORD with it.
- 15 And they did not ask an accounting from the men into whose hand they delivered the money to pay out to the workmen, for they dealt honestl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12:4-5) What did Joash order the priests to do? (12:4-5)

요아스는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 살렘을 쳐들어 오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18) What did Joash do when King Hazael of Aram was ready to attack Jerusalem? (12:18)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H)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요아스의 성전 수리 Joash's Temple Repair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다. 하지만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은 성전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이어졌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한 업적 중 하나는 성전 보수였다. 드디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전에 관심하는 자가 나온 것이다. 요아스는 성전을 성공적으로 고쳐 놓았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성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성물과 금 등을 아람왕에게 보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신을 찾아온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대하 24:17-18). 요아스의 타락을 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악행을 고발하자 요아스는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다.

요아스는 외적인 성전을 제대로 세우고자 애를 썼지만 정작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의 성전은 세우지 못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을 꾈 때에 요아스는 주저함 없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라며 도전한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 심령의 성전이 잘 세워지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The temple of Jerusalem was the spiritual center of Israel. However the spiritual deterioration in southern Judah was followed by absence of empathy and neglect of the temple. Nonetheless one of the achievements of Joash was, when he became the king, to repair the temple. Finally someone with passion for God showed up who was paying attention to the temple. Joash successfully repaired the temple. But he could not keep the temple safe until the end. When King Hazael of Aram came to attack Jerusalem, Joash collected sacred objects and gold at the temple of God as well as at the royal palace and offered them to Hazael as a tribute. Hazael withdrew from Jerusalem and returned to Aram

After the death of Jehoiada the priest who had saved Joash from massacre and helped him to sit on the throne, Joash listened to the officials of Judah who came to pay homage to him, abandoned the temple of the LORD, and worshipped Asherah poles and idols. (2 Chronicles 24:17–18) The prophet Zechariah, son of Jehoiada the priest, witnessed the corruption of Joash and accused King Joash of evil deeds. The people plotted against him and by order of the king they stoned him to death in the courtyard of the LORD's temple. Joash may have tried to build an external temple but he had failed to build an internal spiritual temple of the LORD for himself. That was why when the idol worshippers enticed him, Joash could abandon the temple of the LORD without hesitation and worship idols.

Apostle Paul challenged the Corinthians,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1 Corinthians 3: 16) When we receive the LORD in our heart we ourselves become God's temple and our churches become God's temple as well. More than anything, we should exercise our zeal to build our spiritual temple in our hear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토 Sat

엘리사의 죽음

The death of Elisha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3장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후의 자손인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 이후 여 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엘리사 선지자 가 죽다.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되다.

열왕기하 13:14-25

-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 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 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 15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 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 16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홬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 에 얹고
- 17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 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 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 18 또 이르되 화샄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 19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 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 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 20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 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 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 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 22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 엘을 학대하였으나
- 2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어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때까 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 24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 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Jehoahaz, son of Jehu, was king and reigned northern Israel. Jehoash, son of Jehoahaz, then became the king of northern Israel. Prophet Elisha died. King Hazael of Aram died and his son Ben-Hadad became the king of Aram.

2 Kings 13:14-25

- 14 Now when Elisha had fallen sick with the illness of which he was to die, J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him and wept before him, crying,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of Israel and its horsemen!"
- 15 And Elisha said to him, "Take a bow and arrows." So he took a bow and arrows.
- 16 Then he said to the king of Israel, "Draw the bow," and he drew it. And Elisha laid his hands on the king's hands.
- 17 And he said, "Open the window eastward," and he opened it. Then Elisha said, "Shoot," and he shot. And he said, "The LORD's arrow of victory, the arrow of victory over Syria! For you shall fight the Syrians in Aphek until you have made an end of them."
- 18 And he said, "Take the arrows," and he took them. And he said to the king of Israel, "Strike the ground with them." And he struck three times and stopped.
- 19 Then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and said, "You should have struck five or six times; then you would have struck down Syria until you had made an end of it, but now you will strike down Syria only three times."
- 20 So Elisha died, and they buried him. Now bands of Moabites used to invade the land in the spring of the year.
- 21 And as a man was being buried, behold, a marauding band was seen and the man was thrown into the grave of Elisha, and as soon as the man touched the bones of Elisha, he revived and stood on his feet.
- 22 Now Hazael king of Syria oppressed Israel all the days of Jehoahaz
- 23 But the LORD was gracious to them and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 turned toward them, because of his covenan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nd would not destroy them, nor has he cast them from his presence until now.
- 24 When Hazael king of Syria died, Ben-hadad his son became king in his place.
- 25 Then Jehoash the son of Jehoahaz took again from Ben-hadad the son of Hazael the cities that he had taken from Jehoahaz his father in war. Three times Joash defeated him and recovered the cities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아스는 엘리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3:14) What did Jehoash call Elisha? (13:14)

엘리사가 요아스왕에게 활로 땅을 치라고 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13:18-19)

What was the meaning of Elisha's request that King Jehoash strike down the ground with an arrow? (13:18–19)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TB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무의미가 의미가 되다

Meaningless becomes Meaningful

우리 삶에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 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에 무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깨 닫게 된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엘 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 그런데 왕을 향하여 엘리사는 두 가 지 행위를 하라고 요청한다. 먼저 활과 화살을 갖고 와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쏘라고 한다.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을 상징하는 화살'이라고 말한다. 그 리고 두 번째로,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한다. 요아스는 화살을 집어 땅을 세 번 치고 그친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며 말한다. "왕이 대여섯 번을 쳤 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여호아스 왕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그가 세 번만 치지는 않 았을 것이다. 엘리사가 말릴 때까지 화살이 부러지도록 땅을 쳤을 것이다. 때로 활로 땅을 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 것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깨달어야 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하게 대할 것이 없다. 예수 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마 25:23).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작은 순종과 열심들조차도 큰 의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What appeared to be meaningless in our lives turns out often to be quite meaningful and exerts significant influence on our lives. Then we realize and understand how meaningful the meaningless has become. When the prophet Elisha was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King Jehoash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Then Elisha asked the king to do two things. First he asked the king to get a bow and some arrows and open the east window and shoot the arrow! When the king did as he was told, Elisha declared, "The LORD's arrow of victory, the arrow of victory over Aram!" Next Elisha told the king to take the arrow and strike the ground. The king struck it three times and stopped.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and said, "You should have struck the ground five or six times; then you would have defeated Aram and completely destroyed it. But now you will defeat it only three times." Had King Jehoash of Israel known this before, he may not have stopped after three times. He would have continued to strike the ground until either stopped by Elisha or the arrow had

Sometimes there are things that appear to be meaningless like striking the ground with an arrow. But if it was ordered by God, then we must understand that it is no longer meaningless but carries significant meaning. No word of God is too small to ignore. Jesus introduced God as the one who would delegate big things to those who were faithful with small things. (Matthew 25:23) God turns our small obedience and zeal toward Him that we treat as meaningless into something remarkably meaningfu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a	
	1	
u		

	_	
4		

	_	
4		
٧	U	,
	_	_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주일칼럼

작은 차이가 삶을 구별시킵니다

홍성국 목사(앨리바마프렛빌 한인교회)

요즘 TV에서 소위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늘 통통 튀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니까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 지로 많은 메뉴보다는 오히려 자신 있는 몇 가지 메뉴만 골라서 차별화를 두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면서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역시도 이와 같은 차별화를 보여준다는 것에 주목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창 22장) 모세는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 80세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힘든 여정을 선택했습니다(히 11:25). 다윗은 단지 물맷돌 5개만 들고도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당당히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해 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힘든 것은 가정에 자녀를 가진 '브닌나'라는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브닌나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한나는 자신이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자신의 삶이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브닌나와 싸우거나 자신의 잘난 것을 과시하기보다는, 또한 남편 엘가나에게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화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차별화된 생각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의 조그만 차이가 어떤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어떤 인생은 평범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것, 그게 뭐 대수입니까? 사실 조그만 차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묵상하지 않는 삶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침팬지의 유전 인자도 98%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8%가 비슷하다고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2%의 차이가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2%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것입니다. "Good to Great"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 큰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화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July 월 Mon

아마샤왕과 여로보암 2세의 통치

Reign of Amaziah and Jeroboam II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4장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왕이 되어 에돔을 쳐 승리한다. 아 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폐하고, 반역에 의해 살해당한 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

열왕기하 14:3-14

- 3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 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 4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 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 5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 으나
- 6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 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 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 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 7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 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 8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 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 9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 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 10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 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 11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 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 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 빗을헐고
- 14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Joash's son Amaziah became the king of Judah, attacked Edom, and was victorious. But Amaziah was defeated in war against northern Israel and was assassinated by conspirators. Jeroboam II reigned over northern Israel.

2 Kings 14:3-14

- ³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yet not like David his father. He did in all things as Joash his father had done.
- ⁴ But the high places were not removed; the people still sacrificed and made offerings on the high places.
- ⁵ And as soon as the royal power was firmly in his hand, he struck down his servants who had struck down the king his father.
- ⁶ But he did not put to death the children of the murderers,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here the LORD commanded,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because of their children, nor shall children be put to death because of their fathers. But each one shall die for his own sin."
- ⁷ He struck down ten thousand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and took Sela by storm, and called it Joktheel, which is its name to this day.
- 8 Then Amaziah sent messengers to Jehoash the son of Jehoahaz, son of Jehu, king of Israel, saying, "Come, let us look one another in the face."
- 9 And Jehoash king of Israel sent word to Amaziah king of Judah, "A thistle on Lebanon sent to a cedar on Lebanon, saying, 'Give your daughter to my son for a wife,' and a wild beast of Lebanon passed by and trampled down the thistle.
- 10 You have indeed struck down Edom, and your heart has lifted you up. Be content with your glory, and stay at home, for why should you provoke trouble so that you fall, you and Judah with you?"
- 11 But Amaziah would not listen. So Jehoash king of Israel went up, and he and Amaziah king of Judah faced one another in battle at Beth-shemesh, which belongs to Judah.
- 12 And Judah was defeated by Israel, and every man fled to his home.
- 13 And Jehoash king of Israel captured Amaziah king of Judah, the son of Jehoash, son of Ahaziah, at Beth-shemesh, and came to Jerusalem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for four hundred cubits, from the Ephraim Gate to the Corner Gate.
- 14 And he seized all the gold and silver, and all the vessels that were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in the treasuries of the king's house, also hostages, and he returned to Samaria.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마샤왕이 부왕을 죽인 신복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 엇입니까? (14:6)

Why didn't King Amaziah execute the descendants of the officials who killed his own father? (14:6)

남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왕 여호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할 때에 여호아스는 뭐라고 답합니 까?(14:10)

What was King Jehoash of northern Israel's response when he was challenged to war by King Amaziah of southern Judah? (14:10)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에임스사랑의교회, TBS(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넘어질까 조심하라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그 경험의 의미를 잘 깨달어야 한다. 아마샤가 남유다왕이 된 후 에돔을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아마샤의 군대는 에돔 사람 일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아마샤의 승리는 그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아마샤가 전쟁을 처음 준비할 때, 이스라엘의 용병 십만 명을 모아서 에돔을 치려 했다. 그런데 한 예언자가 아마샤왕에게 말한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군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하시지 않습니다."(대하 25:7~8). 아마샤는 이 말에 순종하여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에돔을 크게 이긴다. 아마샤가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이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건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들과 싸우려고 한다며, 에돔을 이긴 것만으로 영광을 삼고 싸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14:10). 이에 아마샤가 불응하자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한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은 배우지 못했다. 결국 승리로 교만해진 아마샤가 큰 대가를 치른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경고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Those who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LORD must understand what it means to have that experience. After Amaziah became the king of southern Judah and attacked Edom, he experienced that the power of the LORD was with him. Amaziah'a army killed 10,000 Edomites and won the war. The victory of Amaziah was not due to military strength. As Amaziah was preparing for the war, their initial plan was to recruit 100,000 mercenary troops from Israel to attack Edom. But a prophet told King Amaziah, "O king, these troops from Israel must not march with you, for the LORD is not with any of the people of Ephraim." (2 Chronicles 25:7–8) Amaziah decided to heed this prophet, return the mercenaries to Israel, went to war against Edom, and routed Edom. When Amaziah trusted and obeyed God, God responded with victory for him.

Then Amaziah went to war against northern Israel. But King Jehoash of northern Israel urged Amaziah to withdraw and consider it his glory to have defeated Edom and warned against his ego and arrogance from his victory over Edom. (14:10) Amaziah refused to accept Jehoash's terms and war broke out between two nations. Southern Judah was routed by northern Israel. Amaziah may have experienced the power of God during the war against Edom but he never learned to be humble and kneel in front of the LORD. Amaziah paid a big price because he became arrogant after one victory.

Apostle Paul warns the Corinthians,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1 Corinthians 10:12) The experience with God should not be turned into arrogance. To live depending on God with humility is the secret path to victory of a believ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화 Tue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Kings of Judah and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5장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남유다를 웃시야가 통치하고 그를 이어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된 다. 북이스라엘을 사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가 다스 린다.

열왕기하 15:1-10

- 1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칠년에 유다 왕 아마 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 2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육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 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 3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 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 4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 히 그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 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 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 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 6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7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8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삼십팔년에 여로보암의 아 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 9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 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 10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After the reign of Uzziah, Jotham becomes the king of Judah. In the north, Zechariah, Shallum, Menahem, Pekahiah, and Pekah reign as kings of Israel.

2 Kings 15:1-10

- In the twenty-seventh year of Jeroboam king of Israel, Azariah the son of Amaziah,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 ² He was sixteen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ifty-two year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Jecoliah of Jerusalem.
- ³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Amaziah had done.
- 4 Nevertheless, the high places were not taken away. The people still sacrificed and made offerings on the high places.
- ⁵ And the LORD touched the king, so that he was a leper to the day of his death, and he lived in a separate house. And Jotham the king's son was over the household, governing the people of the land.
- 6 Now the rest of the acts of Azariah, and all t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Judah?
- ⁷ And Azariah slept with his fathers, and they buried him with his fathers in the city of David, and Jotham his son reigned in his place.
- 8 In the thirty-eighth year of Azariah king of Judah, Zechariah the son of Jeroboam reigned over Israel in Samaria six months.
- **9** And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s his fathers had done. He did not depart from the sins of Jeroboam the son of Nebat, which he made Israel to sin.
- 10 Shallum the son of Jabesh conspired against him and struck him down at Ibleam and put him to death and reigned in his pl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사랴 (웃시야)왕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15:3-4) How is Azariah (Uzziah) viewed as a king? (15:3-4)

아사랴왕을 하나님께서 치신 후 에 죽을 때까지 그는 어떻게 지냈 습니까? (15:5)

How did king Azariah live his life until his death after the Lord afflicted him with leprosy? (15:5)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거룩을 지키자 Be Holy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남유다의 왕 아사라(웃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십육 세에 왕이 되어 오십이 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고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는 신세가 되었다. 유다의 왕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쓰고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셨는데 그가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하자 그에게 나병을 주어 부정하게 만드셨다. 더 이상 아사라왕을 쓰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은 그가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만 허락된 향불을 왕이 직접 피우려고 했기 때문이다(역대하 26:16-20). 왕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기름부음을 받아 성별된 존재들이다. 그런데 왕은 왕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거룩하고, 제사장도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을 할때에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제사장이 왕의 일을 하려고 할때는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면 거룩하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제한하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거룩한 일이다.

Azariah (a.k.a Uzziah) became king of Judah when he was only sixteen years old and reigned for fifty-two years.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However, the Lord afflicted him with leprosy and he lived in a separate house until the day he died. The affliction of the king of Judah with leprosy is a very unusual thing. The Lord anointed him as king and made him holy (set aside) to serve a special purpose for the Lord. However, when he failed to fulfill his holy purpose, the Lord afflicted him with leprosy. The Lord decided not to use Azariah anymore.

The reason why the Lord afflicted him with leprosy is because he entered the temple of the Lord to burn incense on the altar of incense despite the objections from the priests. (2 Chronicles 26:16–20) Both kings and priests are people who have been anointed with oil and made holy (set apart) by the Lord. For this reason, their holiness is established when they fulfill the special purpose for which they have been set apart, either as a king or a priest. But when a king tries to do the work of a priest and a priest does the work of a king against the Lord's will, then they end up defiling the holiness that has been attributed to them.

We are holy when we do the work that God calls us to do. When God calls us to do something, that work is "holy" even if that work may be menial. Also, when we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that we are more than capable of doing only because we believe that it does not align with God's will for us, we are also being hol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July 수 Wed

유다왕 아하스

Ahaz King of Jud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6장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하스가 왕이 되어 우상을 숭배한다.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한다.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이방의 제단 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다.

열왕기하 16:1-11

- 1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십칠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 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 2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 서 십육 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 3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 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 4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 5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 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 6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 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 7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 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 8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 9앗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 10 아하스 왕이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 리야에게 보냈더니
-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 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Reading insigh

After becoming king, Ahaz engages in idol worship. Rezin king of Aram and Pekah king of Israel attack Judah. Ahaz builds an altar in Jerusalem temple based on the design of the altar he saw in Damascus.

2 Kings 16:1-11

- ¹ In the seventeenth year of Pekah the son of Remaliah, Ahaz the son of Jotham,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 2 Ahaz was twenty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sixteen years in Jerusalem. And he did not do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 3 but he walked in the way of the kings of Israel. He even burned his son as an offering, according to the despic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whom the LORD drove out before the people of Israel.
- 4 And he sacrificed and made offerings on the high places and on the hills and under every green tree.
- ⁵ Then Rezin king of Syria and Pekah the son of Remaliah, king of Israel, came up to wage war on Jerusalem, and they besieged Ahaz but could not conquer him.
- ⁶ At that time Rezin the king of Syria recovered Elath for Syria and drove the men of Judah from Elath, and the Edomites came to Elath, where they dwell to this day.
- **7** So Ahaz sent messengers to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saying, "I am your servant and your son. Come up and rescue me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Syria and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Israel, who are attacking me."
- 8 Ahaz also took the silver and gold that was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in the treasures of the king's house and sent a present to the king of Assyria.
- ⁹ And the king of Assyria listened to him. The king of Assyria marched up against Damascus and took it, carrying its people captive to Kir, and he killed Rezin.
- 10 When King Ahaz went to Damascus to meet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he saw the altar that was at Damascus. And King Ahaz sent to Uriah the priest a model of the altar, and its pattern, exact in all its details.
- 11 And Uriah the priest built the altar; in accordance with all that King Ahaz had sent from Damascus, so Uriah the priest made it, before King Ahaz arrived from Damascu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하스왕이 행했던 길과 일은 어떤 사람들을 따라 행한 것입니까? (16:3)

Who did king Ahaz follow by doing the things that he did? (16:3)

아하스왕이 다메섹에 가서 보고 예루살렘에도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16:10-11) What did king Ahaz make in Jerusalem after his visit to Damascus? (16:10-11)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다다익선의 함정 The Trap of "the More, the Better"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로,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긴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다다익선의 자세가화를 부르기도 한다. 유다왕 아하스는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 앗시리아가 위협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대적한다. 이러한 위기 때에 그가했던 일은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우상이나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아하스는 이방인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제사도 드렸다. 뭐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섬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와 여호와 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며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들려준다(사 17:14). 그리고 이사야는 아하스가 쌓아 놓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에 매료되어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았다. 결국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왕이 되었다(대하 28:22).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한 것들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남겨두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며 돈과 사람, 물질 등을 모으기에 힘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존재임을 믿고 그분 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The phrase, "the more, the better," indicates the idea that it is a good thing to be in possession of something in large quantity. But in the world of faith, "the more, the better" can be a source of misfortune. Ahaz king of Judah was going through a very challenging time. In addition to the threat from Syria, Israel and Aram joined together to fight against Judah. In this crisis, Ahaz sought to gather many people and even idols that could help him.

Ahaz worshipped the gods of foreign nations. He even sacrificed his own son in the fire. He did whatever he could do in order to survive the crisis that he was in. Even the prophet Isaiah came to him and told him about the sign of Immanuel (Isaiah 17:14), promising that the Lord will ultimately save him. Prophet Isaiah also told him to get rid of the foreign gods and serve only the Lord. Unfortunately, however, Ahaz went to Damascus in order to seek the help of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instead of trusting the Lord. And after being impressed by the altar he saw in Damascus, he builds the same altar in the Jerusalem temple. At the end, Ahaz became the king who sinned more against the Lord in times of crisis. (2 Chronicles 28:22)

Believing God is not about expecting God to fill us with many possessions in life. Rather, it is about emptying one's self of everything except God and trusting in God and God alone. People without faith live with a mindset "the more the better" and so they try to accumulate as much people, money and things as they can. But people of faith, people who belong to God, live with an understanding that God is all that they ever need and serv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 기도 6+

전 기노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목 Thu

북이스라엘의 멸망

The End of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7장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호세아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 백성 은 앗수르의 포로가 되어 앗수르 지역으로 옮겨가고, 사마리아 지 역에 이방 민족들이 유입된다.

열왕기하 17:1-12

- 1유다의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간 다스리며
- 2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 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 3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 4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 5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로 올라와 그 곳을 삼 년간 에워쌌더라
- 6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 었더라
- 7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 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 8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 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윸례를 행하였 음이라
- 9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 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 라 상을 세우고
- 11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 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Reading insight

Israel meets its final end during the reign of king Hoshea. The people of Israel is forced into exile in Assyria and people from surrounding nations settle in Samaria.

2 Kings 17:1-12

- ¹ In the twelfth year of Ahaz king of Judah, Hoshea the son of Elah began to reign in Samaria over Israel, and he reigned nine years.
- ² And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yet not as the kings of Israel who were before him.
- 3 Against him came up Shalmaneser king of Assyria. And Hoshea became his vassal and paid him tribute.
- 4 But the king of Assyria found treachery in Hoshea, for he had sent messengers to So, king of Egypt, and offered no tribute to the king of Assyria, as he had done year by year. Therefore the king of Assyria shut him up and bound him in prison.
- 5 Then the king of Assyria invaded all the land and came to Samaria, and for three years he besieged it.
- 6 In the ninth year of Hoshea, the king of Assyria captured Samaria, and he carried the Israelites away to Assyria and placed them in Halah, and on the Habor, the river of Gozan, and in the cities of the Medes.
- 7 And this occurred because the people of Israel had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God, who had brought them up out of the land of Egypt from under the hand of Pharaoh king of Egypt, and had feared other gods
- 8 and walked in the customs of the nations whom the LORD drove out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nd in the customs that the kings of Israel had practiced.
- **9**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secretly against the LORD their God things that were not right. They built for themselves high places in all their towns, from watchtower to fortified city.
- 10 They set up for themselves pillars and Asherim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green tree,
- 11 and there they made offerings on all the high places, as the nations did whom the LORD carried away before them. And they did wicked things, provoking the LORD to anger,
- 12 and they served idols, of which the LORD had said to them, "You shall not do thi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호세아왕은 앗수르왕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17:4) Who did king Hoshea depend on as he betrayed the king of Assyria? (17:4)

17:7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7:7)

How is God described in 17:7 of our text today? (17:7)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mbes & Pastors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어리석은 비둘기 Senseless Dove

위기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왕도 다르지 않았다. 호세아는 앗수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그동안 앗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호세아왕의 배반함을 보고, 앗수르가 사마리아성을 쳐들어와 멸망시킨다. 결국 호세아 통치 9년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앗수르 지역으로 옮겨진다.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을 선지자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판단과 행동이라고 말한다(호 7:11).

호세아왕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리석다고 하신다. 과거 자신들을 종으로 삼았던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앗수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그렇지 않다.

호세아 왕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것은 그들이 앗수르를 배반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17:7~9).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는 것을 지혜라고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느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지혜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 들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며,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8:32).

In time of crisis we seek out people who can help us. Hoshea, the last king of Israel, was no exception. Hoshea sends envoys to Egypt in order to escape the Assyrian rule and discontinues the tribute he was paying to the king of Assyria. When the king of Assyria learns about Hoshea's betrayal, he invades Samaria and conquers Israel. So after nine years of Hoshea's reign, Israel ceases to exist and the people of Israel are exiled to Assyria. Prophet Hosea likens the Israel's act of seeking the help from Egypt to that of a dove that is "easily deceived and senseless (Hosea 7:11)."

Hoshea and others probably have spent a lot of time and energy seeking to save Israel. And they probably concluded that fortifying the relationship with Egypt would give them the best chance of survival. But to God, this was a foolish decision. Yes, seeking help from those who had previously enslaved them is a foolish thing to do. But then again, maintaining a relationship with Assyria would not have been any wiser either.

Likening king Hoshea to a senseless dove is not because he betrayed Assyria but because he betrayed God by sinning against God. (17:7-9)

People normally think that forging a relationship with someone who can be beneficial to them is a wise thing to do. But those who see themselves as God's people must understand that true wisdom is valuing the relationship with God above all relationships and depending on God's help in life. We must remember that while people often try to use their power and influence to control and manipulate other people for their own benefit, God uses God's mighty power and strength to liberate people from sin and lead them to a life of true freedom. (John 8:32)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금 Fri

유다왕 히스기야와 산헤립의 침공

Hezekiah, king of Judah and the Attack of Sennacherib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8장



새539장(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단행한다. 앗수르의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며, 그의 신하 랍사게가 남유다를 모욕 하며 항복할 것을 강요한다.

열왕기하 18:26-37

- 26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긲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 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 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 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 27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 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 니냐하고
- 28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 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 29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 30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 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 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 31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 32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 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 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 33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 서 건진 자가 있느냐
-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 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손에서 건졌느냐.
- 35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 36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 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 37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 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Reading insight

Hezekiah carries out a spiritual cleansing of Judah from idol worship. Sennacherib of Assyria attacks Jerusalem and one of his commanders Rabshakeh insults the people of Judah demanding their surrender.

2 Kings 18:26-37

- 26 Then Eliakim the son of Hilkiah, and Shebnah, and Joah, said to the Rabshakeh, "Please speak to your servants in Aramaic, for we understand it. Do not speak to us in the language of Judah within the hearing of the people who are on the wall."
- 27 But the Rabshakeh said to them, "Has my master sent me to speak these words to your master and to you, and not to the men sitting on the wall, who are doomed with you to eat their own dung and to drink their own urine?"
- 28 Then the Rabshakeh stood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in the language of Judah: "Hear the word of the great king, the king of Assyria!
- 29 Thus says the king: 'Do not let Hezekiah deceive you, for he will not be able to deliver you out of my hand.
- 30 Do not let Hezekiah make you trust in the LORD by saying, The LORD will surely deliver us, and this city will not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 31 Do not listen to Hezekiah, for thus says the king of Assyria: 'Make your peace with me and come out to me. Then each one of you will eat of his own vine, and each one of his own fig tree, and each one of you will drink the water of his own cistern,
- 32 until I come and take you away to a land like your own land, a land of grain and wine, a land of bread and vineyards, a land of olive trees and honey, that you may live, and not die. And do not listen to Hezekiah when he misleads you by saying, The LORD will deliver us.
- 33 Has any of the gods of the nations ever delivered his land out of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 34 Where are the gods of Hamath and Arpad? Where are the gods of Sepharvaim, Hena, and Ivvah? Have they delivered Samaria out of my hand?
- 35 Who among all the gods of the lands have delivered their lands out of my hand, that the LORD should deliver Jerusalem out of my hand?"
- 36 But the people were silent and answered him not a word, for the king's command was, "Do not answer him."
- 37 Then Eliakim the son of Hilkiah, who was over the household, and Shebna the secretary, and Joah the son of Asaph, the recorder, came to Hezekiah with their clothes torn and told him the words of the Rabshake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랍사게는 유다백성에게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18:28)

What did Rabshakeh said to the people of Judah in a loud voice? (18:28)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잠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8:36) Why did king Hezekiah's men remain silent even after being insulted by Rabshakeh? (18:3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생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mark>잠잠하라</mark> Be Silent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에게 대적들이 말할 때 잠잠하라고 지시한다. 앗수르의 산혜립 왕은 랍사게를 비롯한 자신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낸다. 그리고 남유다가 앗수르를 대적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회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다. 어떤 신도 자신의 백성을 앗수르로 부터 구원하지 못했다며 남유다를 압박한다.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산혜립 신하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히스기야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대꾸하기보다는 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잠하신 듯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논쟁을 일으키는 말들은 무익하다. 사탄은 우리로 잠잠하지 말고 분노하라고 하지만 지혜자는 시비를 그치는 게 지혜라고 가르친다(잠 15:18). 세상은 잠잠해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하느라 논쟁과 다툼으로 시끄러워져만 간다. 이때에 세상에 대해서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never easy to just listen to someone insults us. But king Hezekiah ordered his men to be silent when their enemy speaks to them. King Sennacherib of Assyria sent Rabshakeh and other commanders to Jerusalem. When they came, they told the people of Judah to surrender to Assyria. Furthermore, they told the people of Judah not to listen to king Hezekiah's plea to depend on the Lord. They said that no other gods have saved their people from the power of Assyria. When king Hezekiah's men heard this, they remained silent. It wasn't because Sennacherib's men were right or because they had nothing to say. They were silent because king Hezekiah told them to be silent.

King Hezekiah did not respond to the criticisms or attack from other people but brought them to the Lord. He did this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Lord, though He may seem silent at times, listens to every word that people say and pays back people accordingly. The words that fuel quarrels are not beneficial. While Satan tells us to be enraged and seek conflict, wisdom teaches us that calming the quarrel is the way of wisdom. (Proverbs 15:18) Much of the world around is very much immersed in controversies and quarreling, always eager to make one's argument, but not as much in seeking calm. In times like this, we need to learn to be still and give God room to speak to us, willing to listen to what God has to say to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토 Sat

히스기야의 기도와 구원의 응답

Prayer and Answer for deliveranc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19장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앗수르의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구한 다. 앗수르 산헤립 왕의 협박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군대가 물러가고, 산헤립이 피살된다.

열왕기하 19:1-4, 29-35

-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 2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 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 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 4랍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29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 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 리라
- 30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 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 31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 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 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 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 을 쌓지도 못하고
- 33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 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 34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워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 35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 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Reading insight

Amid Assyrian threats, Hezekiah seeks the prayer of the prophet Isaiah. Hezekiah prays to God after receiving a threatening letter from King Sennacherib of Assyria. After God strikes the Assyrian army, the army withdraws, and Sennacherib is murdered.

2 Kings 19:1-4, 29-35

- ¹ As soon as King Hezekiah heard it, he tore his clothes and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 2 And he sent Eliakim, who was over the household, and Shebna the secretary, and the senior priests, covered with sackcloth, to the prophet Isaiah the son of Amoz.
- ³ They said to him, "Thus says Hezekiah, This day is a day of distress, of rebuke, and of disgrace; children have come to the point of birth, and there is no strength to bring them forth.
- ⁴ It may be that the LORD your God heard all the words of the Rabshakeh, whom his master the king of Assyria has sent to mock the living God, and will rebuke the words that the LORD your God has heard; therefore lift up your prayer for the remnant that is left."
- 29 "And this shall be the sign for you: this year eat what grows of itself, and in the second year what springs of the same. Then in the third year sow and reap and plant vine-yards, and eat their fruit.
- **30** And the surviving remnant of the house of Judah shall again take root downward and bear fruit upward.
- 31 For out of Jerusalem shall go a remnant, and out of Mount Zion a band of survivors. The zeal of the LORD will do this.
- 32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the king of Assyria: He shall not come into this city or shoot an arrow there, or come before it with a shield or cast up a siege mound against it.
- 33 By the way that he came, by the same he shall return, and he shall not come into this city, declares the LORD.
- **34** For I will defend this city to save it, for my own sake and for the sake of my servant David."
- 35 And that night the angel of the LORD went out and struck down 185,000 in the camp of the Assyrians. And when people arose early in the morning, behold, these were all dead bodi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히스기야왕이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오늘은 어 떤 날이라고 말했습니까? (19:3) When King Hezekiah sends his servants to the prophet Isaiah, what kind of day is he saying that day will be? (19:3)

하나님은 남유다의 구원을 약속 하시는데 이 일은 누구의 열심으 로 이루어 질것이라 하십니까? (19:31)

God promises the salvation of Judah. With whom will this work be done? (19:31)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해산할 힘이 없도다

The mother has no strength to deliver the baby

해산은 생명을 낳는 일이고, 초인적인 힘과 고통이 따른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남유다의 상황은 스스로 해산할 힘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다(19:3). 앗수르가 공격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를 감당할 힘이 없어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다. 히스기아는 스스로 해산할 힘이 없음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왕에게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앗수르 진영의 군사 십팔만 오 천명을 치셔서 송장으로 만드신다. 때로는 나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익이 있다. 히스기야에게 힘이 있다고 한들, 하룻밤에 십팔만 오 천명의 군사를 칠 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한다.

산모가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과 들이는 힘은 초인적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에게 힘을 부어 주셔서 그녀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필요한 힘을 부여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것이 작던 크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해산할 힘이 없다고 걱정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힘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Delivering a baby is to give birth to life, and it involves superhuman strength and pain. The reason why a mother cannot give up even though it is difficult and painful is because someone's life is at stake. However, the situation in southern Judah seems to be deteriorating because it is like a woman who has no strength to deliver the baby. (19:3)

Assyria attacked, but Jerusalem was on the verge of being destroyed because it was unable to cope with it. Hezekiah knew well that he had no strength to deliver the baby himself. However, he does not give up and seeks Jehovah, the greatest strength of Israel.

God promises the king that Assyria will not destroy Jerusalem and sends His messengers overnight to strike the 185,000 soldier of Assyrian army and slaughter them. Sometimes it is beneficial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when you have no strength. Even if Hezekiah had power, he would not have the power enough to strike 185,000 soldiers overnight. Unfortunately,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to have strength may not experience the power of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8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참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세환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때부터 짐승이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합니다.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죽이고 싶으면 죽입니다. 동정심이나 자비심을 가지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 따위는 생각할수도 없습니다. 짐승에게 '양심'(conscience)이나 '도덕'(morality)이란 너무 사치한 단어입니다. 짐승은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의 욕구' 입니다. 이미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태도는 기대할수도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모릅니다. 체면이나 명예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더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투자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은 '약육강식'(弱肉强食)입니다. 크고 센 놈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생존하기위해서 더 짐승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승을 경멸하거나 증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보통 '네 발로 다니고 강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털 달린 야생 동물'을 지칭합니다. 애완용 물고기나 새장 안에 있는 십자매나 구관조 같은 예쁜 새를 보고 짐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짐승, 들짐승, 날짐승 등을 가리지 않고 전부 싸잡아서 '금수'(禽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짐승은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크게 분류를 할 때, 사람도 짐승 중의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짐승을 동일시하게 되면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면 그 자체가 이미 '욕'입니다. "짐승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어떻게 표현을 하든 짐승과 비교를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짐승남', '야생남', '육식남'과 같은 이상한 신조어들을 만들고, 그런 존재들에게 매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짐승처럼 육체가 강하고 근육이발달된 경우를 지칭하거나 성적으로 매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불교나 동양종교중에는 사람을 짐승에 포함시켜서 '윤회하는 존재'로 설명하기도합니다. 돌이나 흙 그리고 풀과 나무 같은 감정이 없는 무정물(無情物)들은 윤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짐승은 감정이 있는 유정물(有情物)이기 때문에 사람과함께 윤회의 대상으로 묶어버립니다. 사람이 전생에서 못된 짓을 하거나 비윤리적인행동을 일삼게 되면 그것이 '카르마'(Karma) 즉, '업'(業)이 되어 다음 후생에서는 짐승의 단계로 강등되어 태어난다고합니다. 언제든지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짐승이 될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윤회 사상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을 짐승과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윤리'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도 짐승 같은 특징과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짐승을 따로떼어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이것을 인간이 도덕적 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만 합니다. 사람에게서 이런 '신인식'(神認識)을 제외하고 나면, 그는 곧바로 짐승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이땅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히브리서 9: 27). 그러므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조물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최고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를 반추해 볼수 있는 윤리가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즘에 출판되는 많은 책이나 대중 매체들을 보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정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참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빗나간 이데올로기 덕분에 우리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법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비륜(排倫)과 불륜(不倫)'이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자, 세상이 곧바로 짐승의 세상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세상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 이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키려고 한 '슈퍼 전파자'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짓밟아버린 짐

승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회복이라는 명제 하에 모여서 또 다른 범죄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영락없이 짐승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 안의 어딘가에 파묻혀 있을 양심을 캐내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July 월 Mon

히스기야 왕의 통치후기

The latter part of King Hezekiah's reig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20장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죽을 병을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 장된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들에게 남유다의 부 귀와 군사력을 공개한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 을 잇는다.

열왕기하 20:1-11

- 1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 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 리라 하셨나이다
- 2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 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 4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 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 6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워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 라 하셨더라
- 7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 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 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 9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 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 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 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 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 이다 하니라
-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 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 셨더라

Reading insight

Hezekiah, doomed to death, prolongs his life by praying to God. Hezekiah reveals the wealth and military power of Judah to envoys from Babylon. After Hezekiah dies, his son Manasseh succeeds him to the throne.

2 Kings 20:1-11

- In those days Hezekiah became sick and was at the point of death. And Isaiah the prophet the son of Amoz came to him and said to him, "Thus says the LORD, 'Set your house in order, for you shall die; you shall not recover."
- ² Then Hezekiah turned his face to the wall and prayed to the LORD, saying,
- 3 "Now, O LORD, please remember how I have walked before you in faithfulness and with a whole heart, and have done what is good in your sight." And Hezekiah wept bitterly.
- 4 And before Isaiah had gone out of the middle cour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 5 "Turn back, and say to Hezekiah the leader of my people,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David your father: I have heard your prayer; I have seen your tears. Behold, I will heal you. On the third day you shall go up to the house of the LORD,
- 6 and I will add fifteen years to your life. I will deliver you and this city out of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and I will defend this city for my own sake and for my servant David's sake."
- 7 And Isaiah said, "Bring a cake of figs. And let them take and lay it on the boil, that he may recover."
- 8 And Hezekiah said to Isaiah, "What shall be the sign that the LORD will heal me, and that I shall go up to the house of the LORD on the third day?"
- **9** And Isaiah sai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from the LORD, that the LORD will do the thing that he has promised: shall the shadow go forward ten steps, or go back ten steps?"
- 10 And Hezekiah answered, "It is an easy thing for the shadow to lengthen ten steps. Rather let the shadow go back ten steps."
- 11 And Isaiah the prophet called to the LORD, and he brought the shadow back ten steps, by which it had gone down on the steps of Ahaz.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히스기야는 살기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까? (20:3) When Hezekiah prayed for healing, what did he ask God to remember? (20:3)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떠한 사람 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God?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생명 연장의 기적

The miracle of life extension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만큼 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왕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죽을 병이라고 선고한다.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일에 대해 기억해 달라며 통곡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며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 주실 때 굳이 15년의 시간을 정해 주셨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남유다의 생명의 연장과 맞물려 있다.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에는 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의 죄로 멸망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이 그동안 행한 선한 일에 대해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기도와 눈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는 그 남은 시간 동안 그가 말한 선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삶을 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 장시켜 주심으로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는 이 기적의 시간에 하나님께 서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20:3).

There is nothing more dramatic than recovering from a deadly disease. King Hezekiah fell ill at the young age of 39, and the prophet Isaiah declares it a mortal disease. So Hezekiah prays earnestly to God. He weeps and prays, asking God to remember the good he has done with all his heart. God declared death to him, but He sees tears in his prayers, and prolongs his life for another 15 years.

But when God healed Hezekiah from a mortal illness, he set a time period of 15 years. Hezekiah's extension of life is intertwined with that of Judah. Judah did not perish during Hezekiah, but it will be destroyed by their sins at God's appointed time. When Hezekiah prays to God for life, he asks to remember the good things he has done. But what God saw was his prayers and tears. And when God extended his life, He would have wanted Hezekiah to do the good he had done for the remainder of his life.

We may be all living in the time of miracles. We think it is a miracle that Hezekiah lived an extended life of 15 years, but God is working a miracle by extending our lives day by day. We must strive to be remembered as good in the sight of God in this miraculous time. (20:3)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60		a	
		1	
	ti		

	_	
4		N.
	Z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화 Tue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The reign of Manasseh and Am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21장



새454장(통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므낫세는 왕이 되어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 그의 아들 아몬 또한 왕이 된 후 므낫세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다.

열왕기하 21:1-13

- 1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오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 2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 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 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 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 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 5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 들을쌓고
- 6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 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 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 8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 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 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 9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꾂을 받고 악을 행한 것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 10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 르시되
-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 리리라
- 13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 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Reading insigh

Manasseh became king and worshiped foreign idols. When his son Amon became king, he also maintained the way of his father and walked wickedly in the sight of the Lord.

2 Kings 21:1-13

- ¹ Manasseh was twelve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fifty-five year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Hephzibah.
- ² And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despic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whom the LORD drove out before the people of Israel.
- ³ For he rebuilt the high places that Hezekiah his father had destroyed, and he erected altars for Baal and made an Asherah, as Ahab king of Israel had done, and worshiped all the host of heaven and served them.
- 4 And he built altars in the house of the LORD, of which the LORD had said, "In Jerusalem will I put my name."
- 5 And he built altars for all the host of heaven in the two courts of the house of the LORD.
- ⁶ And he burned his son as an offering and used fortune-telling and omens and dealt with mediums and with necromancers. He did much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provoking him to anger.
- ⁷ And the carved image of Asherah that he had made he set in the house of which the LORD said to David and to Solomon his son, "In this house, and in Jerusalem, which I have chosen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I will put my name forever.
- 8 And I will not cause the feet of Israel to wander anymore out of the land that I gave to their fathers, if only they will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 have commanded them, and according to all the Law that my servant Moses commanded them."
- ⁹ But they did not listen, and Manasseh led them astray to do more evil than the nations had done whom the LORD destroye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 10 And the LORD said by his servants the prophets,
- 11 "Because Manasseh king of Judah has committed these abominations and has done things more evil than all that the Amorites did, who were before him, and has made Judah also to sin with his idols,
- 12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hold, I am bringing upon Jerusalem and Judah such disaster that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of it will tingle.
- 13 And I will stretch over Jerusalem the measuring line of Samaria, and the plumb line of the house of Ahab, and I will wipe Jerusalem as one wipes a dish, wiping it and turning it upside dow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eyes? (21:2-11)

므닷세는 어떤 면에서 여호와 보 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까? (21:2-11) In what way was Manasseh a wicked king in Jehovah's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잣대에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your life fits into God's standard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

줄과 추를 베풀리라

I will give you a measuring string and a plumb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는 준공검사를 받는다. 건축 기준에 맞게 지어졌을 때는 검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준에 맞게 바꾸어야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앗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사마리아)을 잰 줄과 아합의 집의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을 검사하겠다고 하신다.

남유다(예루살렘)에 드려진 하나님의 잣대는 그들의 불량함을 드러내었다. 특별히 므낫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미달이었다. 심지어 므낫세왕과 그 백성들의 죄악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각했다(21:2, 9).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릇을 씻어 엎어 버리듯, 씻어 버리겠다고 하신다(21:13). 이제 남유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원주민들과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고 쫓겨날일만 남은 것이다.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므낫세와 예루살렘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이방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잣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 이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고 쫓아내고자 하신다.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와 동일한지를 늘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잣대로 재시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살피며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After building construction is completed, it undergoes an inspection. If it i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standards, it will pass the inspection. But if it isn't, it must be renovated to meet the standards. Northern Israel was destroyed not because Assyria was strong, but because it did not meet God's standards. Now, however, God says that He will examine Jerusalem with a measuring line that measured northern Israel (Samaria) and the plumb line that was used against Ahab's house.

The standards of God offered to Judah (Jerusalem) revealed their injustice. In particular, Manasseh was infinitely short of God's standards. Moreover, the sins of King Manasseh and his people were more serious than those of the Gentiles. (21:2, 9) God said He will wipe Jerusalem like "a man wipes a dish, wiping it, and turning it upside down." (21:13) Now, Judah, like the Canaanite natives and northern Israel, who were expelled from the land of Canaan, is left to be destroyed and driven out.

From worldly standards, Manasseh and Jerusalem seemed to have no problem. This is because all people, including the Gentiles, worshiped idols and lived by doing evil. However, the standard that God's people should use comes from God. God wants to destroy and drive out of the land those who do not meet His standards. The believers must always check whether the standards that they have are the same as those of God. And before God measures us according to His standards, we will have to search and match ourselves to God's standard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드 first mamont Pro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7.1

July 수 Wed

요시야의 통치와 성전수리

Josiah's reign and temple repair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22장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요시야가 왕이 된 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다. 율법 책을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의 저주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애통하 며 회개한다.

열왕기하 22:3-13

- 3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므술람의 손자 아살 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 4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 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 하여
- 5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 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 6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재목 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 7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계하지 말지니 이 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 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 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서 읽으매
- 11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 12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 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 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 격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 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 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Reading insight

After Josiah became king, he discovered the Book of the law while repairing the temple. Through the book of the law, he realizes that Judah is in the midst of God's curse, thus he mourns and repents.

2 Kings 22:3-13

- 3 In the eighteenth year of King Josiah, the king sent Shaphan the son of Azaliah, son of Meshullam, the secretary, to the house of the LORD, saying,
- 4 "Go up to Hilkiah the high priest, that he may count the money that has been brought into the house of the LORD, which the keepers of the threshold have collected from the people.
- 5 And let it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workmen who have the oversight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let them give it to the workmen who are at the house of the LORD, repairing the house
- 6 (that is, to the carpenters, and to the builders, and to the masons), and let them use it for buying timber and quarried stone to repair the house.
- But no accounting shall be asked from them for the money that is delivered into their hand, for they deal honestly."
- 8 And Hilkiah the high priest said to Shaphan the secretary, "I have found the Book of the Law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Hilkiah gave the book to Shaphan, and he read it.
- 9 And Shaphan the secretary came to the king, and reported to the king, "Your servants have emptied out the money that was found in the house and have delivered it into the hand of the workmen who have the oversight of the house of the LORD."
- 10 Then Shaphan the secretary told the king, "Hilkiah the priest has given me a book." And Shaphan read it before the king.
- 11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Law, he tore his clothes.
- 12 And the king commanded Hilkiah the priest, and Ahikam the son of Shaphan, and Achbor the son of Micaiah, and Shaphan the secretary, and Asaiah the king's servant, saying,
- 13 "Go, inquire of the LORD for me, and for the people, and for all Judah, concerning the words of this book that has been found. For great is the wrath of the LORD that is kindled against us, because our fathers have not obeyed the words of this book,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concerning u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 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11)

How did King Josiah react when he heard the contents of the Book of the Law? (22:11)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How do you usually respond to God's Wor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전수리와 율법책 발견

The discovery of the Book of the Law during temple repair

요시아왕의 개혁은 율법책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이 발견된다. 요시아는 그 율법책에 쓰여진 죄악과 멸망이 현재 자신 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옷을 찢고 애통해 한다. 비록 남유다의 멸망이 기정사 실이 되었지만, 요시아는 율법책에 따라 나라를 개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귀한 은혜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은 아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 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함으로 받았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벽난로 불에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이를 행할 때 영적인 새역사가 이루어진다.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옷을 찢고 애통하였다. 하나 님은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요시야를 기쁘게 보셨다 (22:19).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묘사하시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고 비유하셨다(마 11:17). 하나님의 말 씀에 울고 웃던 요시야의 심정으로 우리도 말씀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King Josiah's reform begins with the discovery of the Book of the Law, while repairing the temple. Josiah realizes that the iniquity and destruction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is taking place now. He tears his clothes and mourns. Although the fall of Judah in the South has become an unchangeable fact, Josiah reform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Book of the Law.

It is a precious grace that the Word of God is given to people. However, not everyone receives God's Word by grace. Josiah's second son Jehoiakim received the Word of God with displeasure. As he listens to the scroll that Jeremiah's words of prophecy are written on, he cut it with a sword and burned it in the fireplace. Reformation of faith does not occur just because God's word is given. Like Josiah, when you receive God's Word with fear and put it into practice, spiritual restoration will be achieved.

After Josiah found the book and heard it, he tore his clothes and mourned. When God's words were pronounced, God saw Josiah humbly tearing his clothes and wailing. (22:19) Jesus describes his time as "We played the pip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 (Matthew 11:17) We should hold the Word of God with the heart of Josiah who mourned his people's disobedience and embraced the W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2

July 목 Thu

요시야의 종교개혁

Josiah's Religious Reforms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23장



새283장(통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초해서 영적 개혁을 단행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한다. 요시야는 므깃도 전쟁 에서 전사한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하 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통치한다.

열왕기하 23:15-25

- 15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벧엘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 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 16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 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 17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 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벧엘의 제단에 대 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 18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 19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 호와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벧엘에 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 20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 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 아왔더라
- 21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 22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 23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 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 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 25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 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 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Reading insight

Josiah carries out spiritual reforms based on the Book of the Law. He renews his covenant with God and eradicates idolatry. Josiah dies in the war at Megiddo. Jehoahaz and Jehoiakim, who succeeded Josiah, rule the kingdom wickedly in the sight of God.

2 Kings 23:15-25

- 15 Moreover, the altar at Bethel, the high place erected by Jeroboam the son of Nebat, who made Israel to sin, that altar with the high place he pulled down and burned, reducing it to dust. He also burned the Asherah.
- 16 And as Josiah turned, he saw the tombs there on the mount. And he sent and took the bones out of the tombs and burned them on the altar and defiled it,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the man of God proclaimed, who had predicted these things.
- 17 Then he said, "What is that monument that I see?" And the men of the city told him, "It is the tomb of the man of God who came from Judah and predicted these things that you have done against the altar at Bethel."
- 18 And he said, "Let him be; let no man move his bones." So they let his bones alone, with the bones of the prophet who came out of Samaria.
- 19 And Josiah removed all the shrines also of the high places that were in the cities of Samaria, which kings of Israel had made, provoking the LORD to anger. He did to them according to all that he had done at Bethel
- 20 And he sacrificed al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o were there, on the altars, and burned human bones on them. Then he returned to Jerusalem.
- 21 And the king commanded all the people, "Keep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s it is written in this Book of the Covenant.
- 22 For no such Passover had been kept since the days of the judges who judged Israel, or during all the days of the kings of Israel or of the kings of Judah.
- ²³ But in the eighteenth year of King Josiah this Passover was kept to the LORD in Jerusalem.
- 24 Moreover, Josiah put away the mediums and the necromancers and the household gods and the idols and all the abominations that were seen in the land of Judah and in Jerusalem, that he might establish the words of the law that were written in the book that Hilkiah the priest found in the house of the LORD.
- ²⁵ Before him there was no king like him, who turned to the LORD with all his heart and with all his soul and with all his might, according to all the Law of Moses, nor did any like him arise after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시야가 벧엘에 있는 제단과 산 당을 헐었는데 이것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23:15) Josiah demolished the altar and high places in Bethel. Who built these? (23:15)

요시야는 어떠한 마음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랐습니까? (23:25)

How did Josiah follow all the Mosaic laws? (23:25)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 Turning to God

요시야 왕은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남유다에 임할 것 임을 명확히 알았다. 또한 그 멸망이 자신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들었다. 요시야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남유다에 임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도 아니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하지만 요시야는 말 씀의 회복을 위하여 개혁을 단행한다. 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수많은 우상들 과 신당들을 제거한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개혁뿐만 아니라, 벧엘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단행한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3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벧엘의 제단에서 분향할 때 선지자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왕상 13:1-3). 요시야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이 벧엘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 상을 불살랐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다(23:25).

요시야의 열심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남유다에게 임박한 멸망을 돌이 키고자 함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함이었다. 그것이 3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 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우리의 주변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미 래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King Josiah clearly knew, through the prophet Hulda, that the curse recorded in the Book of the Law would come upon Judah. He was also told that the destruction would not happen in his own time. From Josiah's point of view, it was not his own liability that the curse recorded in the Book of the Law came upon Judah. However, Josiah carried out reforms to restore the Word. He removes numerous idols and shrines made by his father Manasseh.

Josiah not only reforms Judah, but also reforms Bethel and northern Israel. This is not a coincidence. More than 300 years ago, Jeroboam, the first king of northern Israel, burned incense at the altar of Bethel. Then a prophecy was declared and it is now realized by Josiah. (1 Kings 13:1–3) Josiah destroys the altar and high places at Bethel in the perished northern Israel and burns the Asherah pole. There is no king before or after Josiah, who turned to Jehovah with all his heart, with all his will, and with all his might. (23:25)

Josiah's zeal was not driven by anyone, nor did he seek to reverse the impending destruction of Judah. It was just to live faithfully to God's Word. That was what God wanted of Josiah 300 years ago. Even if our actions may have no effect on our surroundings and no influence in the future, God wants us to live with our utmost obedience to God's Word to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다 first mamo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3

July 금 Fri

바벨론의 침략

Babylonian invas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24장



새336장(통383장) 화난과 핍박 중에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야김의 통치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간다.

열왕기하 24:1-13

- 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 2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 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 3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 4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 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 니하시니라
- 5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 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6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 기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7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 8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팔 세라 예루살렘에 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 9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 10 그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 11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 12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 13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Reading insigh

During Jehoiakim's reign, Judah was invaded by Babylon. Jehoiachin, established as king by Babylon,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Jerusalem is captured and the people are taken captive to Babylon.

2 Kings 24:1-13

- ¹ In his days,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up, and Jehoiakim became his servant three years. Then he turned and rebelled against him.
- 2 And the LORD sent against him bands of the Chaldeans and bands of the Syrians and bands of the Moabites and bands of the Ammonites, and sent them against Judah to destroy it,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by his servants the prophets.
- ³ Surely this came upon Judah at the command of the LORD, to remove them out of his sight, for the sins of Manasseh, according to all that he had done.
- 4 and also for the innocent blood that he had shed. For he filled Jerusalem with innocent blood, and the LORD would not pardon.
- ⁵ Now the rest of the deeds of Jehoiakim and all t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Judah?
- 6 So Jehoiakim slept with his fathers, and Jehoiachin his son reigned in his place.
- **7** And the king of Egypt did not come again out of his land, for the king of Babylon had taken all that belonged to the king of Egypt from the Brook of Egypt to the river Euphrates.
- 8 Jehoiachin was eighteen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three month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Nehushta the daughter of Elnathan of Jerusalem.
- ⁹ And he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had done.
- 10 At that time the servants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up to Jerusalem, and the city was besieged.
- 11 And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the city while his servants were besieging it,
- 12 and Jehoiachin the king of Judah gave himself up to the king of Babylon, himself and his mother and his servants and his officials and his palace officials. The king of Babylon took him prisoner in the eighth year of his reign
- 13 and carried off all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s house, and cut in pieces all the vessels of gold in the temple of the LORD, which Solomon king of Israel had made, as the LORD had foretol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물리치고자 하심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24:3) In the days of Jehoiakim, whose sin caused God to punish Judah? (24:3)

당신은 후손들에게 어떠한 믿음 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How will your faith influence your descendants?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

The world that will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후손들에게 잘 쓰고 돌려주어야 할 것은 자연만이 아니다. 좋은 믿음의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남유다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물려주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지만(시 103:8), 죄악이 도를 넘었을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보아야 한다.

남유다의 멸망은 남유다 말기 왕들의 죄악과 잘못된 정치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선조 왕들로부터 축적된 악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24:3-4). 요시야의 개혁과 돌이킴에도 유다에 흐르는 악의 물결을 멈출 수는 없었다. 요시야 개혁 때에 요시야가 파괴한 제단들은 아하스, 므낫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23:12-13). 그들의 악은 해결됨 없이 후손에게 물려졌고 후손들 또한 죄에 죄를 더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히 12:1). 그들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믿음의 선조된 우리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후손들의 삶을 대신하여 미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There is a saying that "nature is not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but is borrowed from our descendants." Nature is not the only thing that should be preserved and returned to our descendants. The heritage of steadfast faith must be passed on as a legacy. However, the ancestors of Judah passed the wickedness and the wrath of God to their descendants.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Psalm 103:8), but when society has gone out of control with sin, He is the One who judges with justice. Through the destruction of Judah, we see God's anger.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also see how patiently God has been and how he has shown His favor.

Judah's destruction was due to the evils that had already accumulated from the ancestral kings, but it was also the result of the sins and corrupt politics of the late kings of Judah. God says one of the reasons the Babylonian king struck Jerusalem in Jehoiakim's day was due to all the sins of Manasseh. (24:3–4) Josiah's reform and conversion could not stop the wave of evil flowing through Judah. The altars that Josiah destroyed during his reformation were those made by Ahaz, Manasseh, and Solomon. (23:12–13) The evils of their kings were passed to the descendants without being resolved. The descendants also added more sin, and they finally were destroyed.

We have numerous witnesses who first walked the path of faith. (Hebrews 12:1) They are the ancestors of faith touched by the Lord Jesus, and their faith is now saving us. As ancestors of faith, we must not pass on God's wrath to our descendants, but an inheritance that can prepare them to receive God's blessing. Today we may be living in advance for the future of our descendant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7.4

July 토 Sat

유다왕국의 멸망

The fall of the kingdom of Jud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열왕기하 2 Kings 25장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한다. 예루 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바벨론 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야가 암살당한다. 유다왕 여호야기이 옥에서 풀려난다.

열왕기하 25:8-17

- 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에 이르러
- 9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 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 10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 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 11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 12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 두어 포도 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 13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 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 14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 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 15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 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 16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 등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 17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Reading insight

During the reign of King Zedekiah, Babylon invaded and captured Jerusalem. Jerusalem and the temple were destroyed, and the people were taken to Babylon. Gedaliah, established by Babylon as governor of Judah, was assassinated. King Jehoiachin of Judah was released from prison.

2 Kings 25:8-17

- 8 In the fifth month, on the seventh day of the month--that was the nineteenth year of King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Nebuzaradan, the captain of the bodyguard, a servant of the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 9 And he burne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and all the houses of Jerusalem; every great house he burned down.
- ¹⁰ And all the army of the Chaldeans, who were with the captain of the guard, broke down the walls around Jerusalem.
- 11 And the rest of the people who were left in the city and the deserters who had deserted to the king of Babylon,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multitude, Nebuzaradan the captain of the guard carried into exile.
- 12 But the captain of the guard left some of the poorest of the land to be vinedressers and plowmen.
- 13 And the pillars of bronze that were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stands and the bronze sea that were in the house of the LORD, the Chaldeans broke in pieces and carried the bronze to Babylon.
- 14 And they took away the pots and the shovels and the snuffers and the dishes for incense and all the vessels of bronze used in the temple service,
- 15 the fire pans also and the bowls. What was of gold the captain of the guard took away as gold, and what was of silver, as silver.
- 16 As for the two pillars, the one sea, and the stands that Solomon had made for the house of the LORD, the bronze of all these vessels was beyond weight.
- 17 The height of the one pillar was eighteen cubits, and on it was a capital of bronze. The height of the capital was three cubits. A latticework and pomegranates, all of bronze, were all around the capital. And the second pillar had the same, with the latticewor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벨론의 시위대장은 예루살렘에 어떠한 자들을 남겨 두었습니까? (25:12)

What kind of people were left in Jerusalem by the captain of the guard of Babylon? (25:12)

바벨론으로 옮겨 간 성전 앞에 있 던 두 놋기둥의 이름은 각각 무엇 입니까? (왕상 7:21)

What are the names of the two bronze pillars in front of the temple that were taken to Babylon? (1 Kings 7:21)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금덩어리가 되어버린 성전

The temple has become a lump of gold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다. 이에 바벨론왕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는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되었고, 하루하루 토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하나님도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신다. 기근을 주셔서 양식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된다. 여호와의 성전은 불타고 성전에 있던 성물들은 약탈되었다. 약탈자들은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놋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 성전 앞에 있는 두 놋기둥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간 성전 기물들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 성별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약탈자들에게 성전의 성물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는 금, 은, 놋덩어리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 낼수가 없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켜낼수 없다. 성도의 타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훼손되게 한다. 그러기에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된다.

Zedekiah was established as king of Judah by the king of Babylon, but he betrayed the king of Babylon and relied on Egypt. So the Babylonian king encamped in Jerusalem with all the troops to attack Jerusalem and built siege ramps. Jerusalem was besieged by Babylon, and King Zedekiah became more anxious as he watched the siege ramps rising from day to day. God also hastened the destruction of Judah. Because of the famine, food ran out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could no longer withstand it.

Eventually, the city of Jerusalem was captured. The temple of Jehovah was burned, and the relics in the temple were plundered. The marauders took everything from the temple made of gold, silver, and bronze. The two bronze pillars in front of the temple were destroyed and moved to Babylon. The temple items taken by the Babylonians were consecrated to be used by God. However, for the predators, the temple's relics were not holy, but were lumps of gold, silver, and bronze that satisfied their physical greed. Judah, the people of God, could not keep the holiness of God because they did not live holy.

When the holy life of a believer falls apart, he cannot preserve the holiness and dignity of God. The fall of God's people undermines the dignity of a holy God. Therefore, the holy life of the saints becomes a light that illuminates the world of God's holiness and dignit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5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저항과 포용

이준협목사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치알신'이라는 이름의 19세 미얀마 여대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군부가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정부를 전복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 시민들이 나서서 저항운동을 할 때 맨 앞에 나섰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시위에 나서기 전, 유언으로 장기를 기증할 것과 연명 치료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나선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에 한국의 대중음악과 춤, 연예인 등에 내용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또 어려 서부터 태권도를 배워 그녀가 사는 지역의 태권도 교사까지 해온 경력이 있던 학생입니다. 참 꿈이 많고 이상이 높았던 그녀가 시위에 나서기 전,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팔에 무사 기원의 빨간 띠를 묶어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찍은 다정한 사진을 보며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제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 그녀가 시위 도중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럴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시위에 참여하기 전 페이스 북에 자신의 혈액형, 비상연락처, 그 리고 만일을 대비한 시신 기증의 메시지까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외신을 보면 군부가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 앞에 선 이들을 정밀 사격하며 저항의 예봉을 꺾 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의 시위대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는 것 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얀마의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치알 신의 시신이 도굴 됐습니다. 그녀가 묻힌 지 하루 만에 한밤중에 군부가 시신을 탈취한 것인데요. 총격 의 증거를 없애려 한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 정부를 전복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의 폭거가 어디까지 갈지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미얀마의 민 주화 시위는 1980년 한국의 광주 민중항쟁과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고귀한 저항의 정신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초기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웅산수치 여사가 정권을잡고 있던 시기인 바로 얼마 전까지도 미얀마에선 소수 민족인로 향야족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주도한작전이었지만, 국제사회에서 현재 아무도 로힝야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저는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감금된 저항의 중심 수치 여사 본인도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그녀가받은 노벨 평화상을 무효화 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과 시민사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로힝야족 학살에 동조했습니다. 지금 미얀마 시민사회의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로힝야족의 저항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다시 군부를 향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엔 악의 축인 미얀마 군부가 있습니다.

'저항'과 '포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시민사회의 저항이 성숙하기 위해선 그들이 로힝야족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모두가 억압당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폭력, 부조리와 악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이들은 연대해야 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총부리를 서로에게 돌렸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미얀마 사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선 미얀마 시민사회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저항은 서로를 포용할 때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국제사회의 도움도 명분과 힘을얻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회윤리적 기준은 '공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을 향해 선 '공의'를 선포하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미국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이버(Neinhold Niebuhr)가 전한 '기독교 현실주의 윤리'입니다. 이번 미안마 사태를 보면서 함께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불의와 악을 향해선 용기로 저항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선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함께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보다 긍정적인 오늘로 변화해 갈줄 믿습니다. 샬롬!

2.6

July 월 Mon

하박국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Habakkuk's Complaint and God's Response

통독본문 Reading Plan

하박국 Habakkuk 1장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박국은 남유다의 불의와 패역에 잠잠하신 하나님에 대해 불평 한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동원하여 남유다의 악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박국 1:1-11

- 1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 2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 께서 구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 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 4 이러므로 윸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 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 6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 에게서 나오며
-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 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 9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 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 10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 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 죄하리라

Reading insight

Habakkuk complains to God who is silent on Judah's injustice and wrongdoing. In response, God says that he will mobilize the Chaldeans to punish the evils of Judah.

Habakkuk 1:1-11

- ¹ The oracle that Habakkuk the prophet saw.
- ² O LORD, how long shall I cry for help, and you will not hear? Or cry to you "Violence!" and you will not save?
- 3 Why do you make me see iniquity, and why do you idly look at wrong?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strife and contention arise
- 4 So the law is paralyzed, and justice never goes forth. For the wicked surround the righteous; so justice goes forth perverted
- 5 "Look among the nations, and see; wonder and be astounded. For I am doing a work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ot believe if told.
- 6 For behold, I am raising up the Chaldeans, that bitter and hasty nation, who march through the breadth of the earth, to seize dwellings not their own.
- 7 They are dreaded and fearsome; their justice and dignity go forth from themselves.
- 8 Their horses are swifter than leopards, more fierce than the evening wolves; their horsemen press proudly on. Their horsemen come from afar; they fly like an eagle swift to deyour
- **9** They all come for violence, all their faces forward. They gather captives like sand.
- ¹⁰ At kings they scoff, and at rulers they laugh. They laugh at every fortress, for they pile up earth and take it.
- 11 Then they sweep by like the wind and go on, guilty men, whose own might is thei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박국이 바라본 남유다의 모습 은 어떠했습니까? (1:4) How did Habakkuk describe Judah? (1:4)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1:5, 9-11) What is the surprising thing that God prepared? (1:5, 9-11)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왜 잠잠하시나이까?

Why are you speechless?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남유다에 만연한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였다. 그런데 하박국을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선지자가 생각하기에하나님은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불의한 분으로 보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하신다. 말해도 믿지 못할 놀라고 놀랄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1:5). 하나님은 남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보다 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셨고, 남 유다의 일을 처리하기위해 갈대아 사람들까지 동원하신 분이다. 남유다의 죄악을 처리하시기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도 땅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그냥 두고보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물로 뒤엎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창 7:23). 하나님은 결코 악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잠잠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스스로우리의 죄악을 살피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The evil things that happen in this world make people lament. The prophet Habakkuk also sighed while seeing the sinful reality prevalent in southern Judah. But it was God who embarrassed Habakkuk even more. In the prophet's opinion, God was the One who did not hear the people's cry in the shameful reality and did not try to save them. To him, God seemed to be indifferent and unrighteous, doing nothing about evil.

Then God answers the prophet. He says that he is preparing something astounding and surprising. (1: 5) God promises to raise up fierce and impatient people, the Chaldeans, to punish Judah. God knew more about the reality of Judah than Habakkuk, and he mobilized even the Chaldeans to handle the affairs of Judah. It is God who moves the whole world to deal with the sins of Judah.

Even in Noah's day, God didn't just let go of the sins that prevailed on the earth, but flooded the whole world with water and surprised people. (Genesis 7:23) God is never silent about evil. And he also is not silent about the evil in us. He sees and hears our sins. So, we have to examine and deal with our sins ourselves so that God does not prepare unbelievable things to deal with our sin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	:니까?
첫 기도 first mome	nt Prav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July 화 Tue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Babylon will be judged

통독본문 Reading Plan

하박국 Habakkuk 2장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악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 함을 하박국이 말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하박국 2:1-10

-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 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를 기록하여 파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 3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 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 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 4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 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5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 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 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 6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 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 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 7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 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 8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 9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 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 10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Reading insigh

When Habakkuk says that God's punishment for Judah through evil Babylon is unjust, God says that Babylon will also be judged.

Habakkuk 2:1-10

- ¹ I will take my stand at my watch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tower, and look out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I will answer concerning my complaint.
- ² And the LORD answered me: "Write the vision; make it plain on tablets, so he may run who reads it.
- ³ For still the vision awaits its appointed time; it hastens to the end--it will not lie. If it seems slow, wait for it; it will surely come; it will not delay.
- 4 "Behold, his soul is puffed up; it is not upright within him, bu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
- 5 "Moreover, wine is a traitor, an arrogant man who is never at rest. His greed is as wide as Sheol; like death he has never enough. He gathers for himself all nations and collects as his own all peoples."
- 6 Shall not all these take up their taunt against him, with scoffing and riddles for him, and say, "Woe to him who heaps up what is not his own-- for how long?-- and loads himself with pledges!"
- 7 Will not your debtors suddenly arise, and those awake who will make you tremble? Then you will be spoil for them.
- 8 Because you have plundered many nations, all the remnant of the peoples shall plunder you, for the blood of man and violence to the earth, to cities and all who dwell in them.
- 9 "Woe to him who gets evil gain for his house, to set his nest on high, to be safe from the reach of harm!
- 10 You have devised shame for your house by cutting off many peoples; you have forfeited your lif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습니까? (2:4) What did God say that the righteous live by? (2:4)

많은 민족을 멸한 자는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됩니까? (2:10) What will be the consequences for those who destroy many nations? (2:10)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민고 기다리라 Believe and wait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영 못마땅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방관하 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라며 불편함 을 드러낸다(1:13). 하나님은 하박국의 반응에 답하신다. 남유다에게 폭악 을 행한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다. 하 박국은 그 대답으로 불만이 더 쌓인다. 남유다를 더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신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2:3)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인은 정한 때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한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창 15:6). 아브라함은 비록 별과 같은 자손들을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던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사람이 원하는 때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의인으로 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늦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자.

God mobilized the Chaldeans to punish the sins of Judah. Habak-kuk turns to God, "Will you wink at their treachery? Should you be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up people more righteous than they?" Habakkuk reveals his discomfort. (1:13) God responds. It is said that Babylon, who committed violence against Judah, will also be destroyed by their pride and evil deeds. Habakkuk is more dissatisfied with the answer. He cannot understand the God who punishes Judah by those who are even more unrighteous.

So God speaks to Habakkuk,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2:3) And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God's Word must come true when God has appointed it. The righteous are those who trust and await the faithfulness of God, even though the appointed times are delaye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8

July 수 Wed

선지자의 찬양과 기도

Prophet's Praise and Prayer

통독본문 Reading Plan

하박국 Habakkuk 3장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처사에 부당함을 제기한 하박국이 하나 님의 대답을 들은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예언을 마 친다.

하박국 3:1-12

- 1시기오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 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 4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속에 감추어졌도다
-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 6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 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 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 도다
- 7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 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워의 병거를 모시 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 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 9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셀 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 10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 12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 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Reading insight

Habakkuk, who questioned God's unfairness in dealing with Judah, listens to God's answer and ends the prophecy by praising God with prayer.

Habakkuk 3:1-12

- ¹ A prayer of Habakkuk the prophet, according to Shigionoth.
- ² O LORD, I have heard the report of you, and your work, O LORD, do I fear. In the midst of the years revive it; in the midst of the years make it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 ³ God came from Teman, and the Holy One from Mount Paran. His splendor covered the heavens, and the earth was full of his praise. Selah
- 4 His brightness was like the light; rays flashed from his hand; and there he veiled his power.
- 5 Before him went pestilence, and plague followed at his heels
- ⁶ He stood and measured the earth; he looked and shook the nations; then the eternal mountains were scattered; the everlasting hills sank low. His were the everlasting ways.
- 7 I saw the tents of Cushan in affliction; the curtains of the land of Midian did tremble.
- 8 Was your wrath against the rivers, O LORD? Was your anger against the rivers, or your indignation against the sea, when you rode on your horses, on your chariot of salvation?
- ⁹ You stripped the sheath from your bow, calling for many arrows. Selah You split the earth with rivers.
- 10 The mountains saw you and writhed; the raging waters swept on; the deep gave forth its voice; it lifted its hands on high.
- 11 The sun and moon stood still in their place at the light of your arrows as they sped, at the flash of your glittering spear.
- 12 You marched through the earth in fury; you threshed the nations in ang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 노하시는 중에도 무엇을 잊지 말 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2)

What does Habakkuk want God to remember even when He is angry? (3:2)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3:8)

How does Habakkuk describe the God who saves Israel? (3:8)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Don't forget your mercy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불만스러운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하박국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는 하박국의 기도로 끝난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깨달았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졌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지 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진노하더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진노의 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음을 하박국은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원망과 실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박국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불만은 찬양으로 바뀌었다.

진노 가운데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도는 하박국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다.

The book of Habakkuk, which began with the prophet Habakkuk's complaint against God, ends with Habakkuk's prayer that he is satisfied with the God of salvation. Through dialogue with God, Habakkuk realizes that God wants to destroy the enemy and restore Israel through justice. Habakkuk, who has had a disgruntled attitude toward God, knows the will of God and prays for the quick fulfillment of what the Lord has planned. And, when that happens, he prays not to forget mercy even if God is angry. Habakkuk knows well that without God's mercy, he cannot safely pass through the times of wrath.

It is God's mercy that brings hope for those who pass through the time of God's fiery wrath. It is also God's mercy to save those who deserve to be destroyed due to iniquity. When Habakkuk did not understand God properly, he harbored resentment and disappointment, but after meeting God, his despair turned into hope and his discontent turned into praise.

Even in the midst of wrath, God's mercy to save sinners was revealed to the believers through the cross of Christ. For this reason, we should be able to rejoice through the God of salvation even if we lose everything like Habakkuk.

Journaling with Jesus

ㅇ느이	フトル	Than	ke N	lote
		HIGH	V 9 I I	

1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1 -1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July 목 Thu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The prophecy of coming Judgment against Jud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스바냐 Zephaniah 1장



새426장(통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진멸하실 것을 예언한다.

스바냐 1:7-16

- 7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 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 8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 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 9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 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 10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 는 소리가,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 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 11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 12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 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 13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 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 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 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도다
- 15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확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 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 16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Reading insigh

The prophet Zephaniah foretold that God would destroy not only the people of Judah, but also everything on earth because of Judah's sin.

Zephaniah 1:7-16

- ⁷ Be silent before the Lord GOD!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the LORD has prepared a sacrifice and consecrated his guests.
- 8 And on the day of the LORD's sacrifice-- "I will punish the officials and the king's sons and all who array themselves in foreign attire.
- 9 On that day I will punish everyone who leaps over the threshold, and those who fill their master's house with violence and fraud
- 10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a cry will be heard from the Fish Gate, a wail from the Second Quarter, a loud crash from the hills.
- 11 Wail, O inhabitants of the Mortar! For all the traders are no more; all who weigh out silver are cut off.
- 12 At that time I will search Jerusalem with lamps, and I will punish the men who are complacent, those who say in their hearts, 'The LORD will not do good, nor will he do ill.'
- 13 Their goods shall be plundered, and their houses laid waste. Though they build houses, they shall not inhabit them; though they plant vineyards, they shall not drink wine from them."
- 14 The great day of the LORD is near, near and hastening fast; the sound of the day of the LORD is bitter; the mighty man cries aloud there.
- 15 A day of wrath is that day, a day of distress and anguish, a day of ruin and devastation, a day of darkness and gloom, a day of clouds and thick darkness,
- 16 a day of trumpet blast and battle cry against the fortified cities and against the lofty battlemen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와 앞에서 어 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1:7) Since the day of the Lord is near, what did the prophet Zephaniah tell us to do for the Lord? (1:7)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1:12)

What kind of people are God seeking with a lamp to punish? (1:12)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마음속에 가라앉아있는 찌꺼기 The debris at the bottom of the mind

스바냐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1:2).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땅과 바다와 공중의 짐승들도 포함된다. 그 진멸 가운데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벌하시고자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혼자 지껄여대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한다(1:12). 마음속에 가라앉은 찌꺼기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복도 화도 내릴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보았다.

남유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비단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그 마음에 찌꺼기가 가라앉은 불순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등불을 밝혀 찾으실 만큼 심각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찌꺼기를 찾기 전에 스스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생각하고 행동하는 찌꺼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Zephaniah begins with God's word that He will sweep away everything from the face of the earth. (1:2) God's targets include not only humans, but also beasts of the earth, the sea, and the air due to the sins of men. In the midst of that destruction, there are those whom God wants to seek with a lamp to punish them. They are like wine left on its dregs in Jerusalem and are the ones who chatter alone. They say "The Lord will do nothing, either good or bad". (1:12) Such people deny the existence of God. They view God as a powerless being who could not even bless or curse.

The people of Judah said they believed in God with their lips, but with their hearts they were people who left God and denied His existence. Not only atheists, but those who pretend to believe in God but think and act as though there is no God are impure people whose debris sank in their hearts. God takes these people seriously enough to search for them with a lamp. Before God finds our debris, we have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debris in our hearts that thinks and acts as if there is no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30

July 금 Fri

회개의 권고와 열방의 멸망

A Call to Repentance and the Fall of the Nations

통독본문 Reading Plan

스바냐 Zephaniah 2장



새298장(통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 죄를 회개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서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앗수르의 멸망이 예언되다.

스바냐 2:1-10

- 1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 2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 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합지어다
- 3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 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 4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 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 5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 6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 7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 8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 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 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 10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의 백성을 훼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Reading insight

The prophet calls for the repentance of sins before the day of Jehovah's wrath comes. Subsequently, the destruction of the Philistines, Moab, Ammon, Cush, and Assyria is foretold.

Zephaniah 2:1-10

- 1 Gather together, yes, gather, O shameless nation,
- ² before the decree takes effect --before the day passes away like chaff-- before there comes upon you the burning anger of the LORD, before there comes upon you the day of the anger of the LORD.
- ³ Seek the LORD, all you humble of the land, who do his just commands; seek righteousness; seek humility; perhaps you may be hidden on the day of the anger of the LORD.
- ⁴ For Gaza shall be deserted, and Ashkelon shall become a desolation; Ashdod's people shall be driven out at noon, and Ekron shall be uprooted.
- ⁵ Woe to you inhabitants of the seacoast, you nation of the Cherethites! The word of the LORD is against you, O Canaan, land of the Philistines; and I will destroy you until no inhabitant is left.
- 6 And you, O seacoast, shall be pastures, with meadows for shepherds and folds for flocks.
- 7 The seacoast shall become the possession of the remnant of the house of Judah, on which they shall graze, and in the houses of Ashkelon they shall lie down at evening. For the LORD their God will be mindful of them and restore their fortunes.
- 8 "I have heard the taunts of Moab and the revilings of the Ammonites, how they have taunted my people and made boasts against their territory.
- ⁹ Therefore, as I live," declare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Moab shall become like Sodom, and the Ammonites like Gomorrah, a land possessed by nettles and salt pits, and a waste forever. The remnant of my people shall plunder them, and the survivors of my nation shall possess them."
- 10 This shall be their lot in return for their pride, because they taunted and boasted against the people of the LORD of hos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여호 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 주기를 원 하십니까? (2:3)

Whom does God want to shelter on the day of Jehovah's wrath? (2:3)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까? (2:3)

What does God ask the humble to seek and pursue? (2:3)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Perhaps you will be sheltered

누구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미 작정되었다. 그날에는 자연과 사람들이 진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숨김을 주시고자 그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숨겨 주시는 이는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이다.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 신다. 하나님은 '혹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환난 날에 겸손한 자들을 숨겨 주 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세상 끝 날에 있을 환난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고 하셨다(막 13:20).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능하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지키는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환난으로부터 숨기고자 하신다. 환난이 많은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숨김을 받아야 할 것이다.

No one can escape the day of God's wrath. The safe path is possible only when God gives it. The day of God's wrath has already been set for Judah. On that day, the environment and people will be destroyed. But God tells them to gather before the day of Jehovah's wrath comes. God calls and hides all the humble people in the world who keep Jehovah's ordinances. He also tells us to seek Jehovah and pursue justice and humility.

Those whom God shelters are humble, and those who are humble are those who keep Jehovah's ordinances. Then, on the day of Jehovah's wrath, "perhaps" they will be sheltered. God reveals that the protection of the humble in the day of tribulation is not based on their actions, but is subject to God's sovereignty and mercy.

Jesus spoke of the day of tribulation at the end of the world. "If the Lord had not cut short those days, no one would survive.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whom he has chosen, he has shortened them." (Mark 13:20) It is not through his own righteousness that a sinner can be saved, but entirely through God's mercy and grace. Our merciful God chooses the humble one who keeps His law and wants to protect them from tribulation. We will be sheltered by God in humility during times of great tribulatio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31

July 토 Sat

예루살렘 멸망과 미래의 소망

Jerusalem's destruction and future hope

통독본문 Reading Plan

스바냐 Zephaniah 3장



새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예언한 스바냐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 복과 열방의 구원을 예언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보여주며, 환난 중에 있는 백성을 위 로한다.

스바냐 3:8-17

- 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 되리라
- 9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 10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 11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 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 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지라
-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 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 15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 16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 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Reading insight

Zephaniah, who foretold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predicts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salvation of the nations. He shows how much God loves His people through this, and comforts the people in the tribulation.

Zephaniah 3:8-17

- 8 "Therefore wait for me," declares the LORD, "for the day when I rise up to seize the prey. For my decision is to gather nations, to assemble kingdoms, to pour out upon them my indignation, all my burning anger; for in the fire of my jealousy all the earth shall be consumed.
- 9 "For at that time I will change the speech of the peoples to a pure speech, that all of them may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serve him with one accord.
- 10 From beyond the rivers of Cush my worshipers, the daughter of my dispersed ones, shall bring my offering.
- 11 "On that day you shall not be put to shame because of the deeds by which you have rebelled against me; for then I will remove from your midst your proudly exultant ones, and you shall no longer be haughty in my holy mountain.
- 12 But I will leave in your midst a people humble and lowly. They shall seek refuge in the name of the LORD,
- 13 those who are left in Israel; they shall do no injustice and speak no lies, nor shall there be found in their mouth a deceitful tongue. For they shall graze and lie down, and none shall make them afraid."
- 14 Sing aloud, O daughter of Zion; shout, O Israel! Rejoice and exult with all your heart, O daughter of Jerusalem!
- 15 The LORD has taken away the judgments against you; he has cleared away your enemies. The King of Israel, the LORD, is in your midst; you shall never again fear evil.
- 16 On that day it shall be said to Jerusalem: "Fear not, O Zion; let not your hands grow weak.
- 17 The LORD your God is in your midst, a mighty one who will sa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he will exult over you with loud sing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입술이 깨끗해진 백성들은 그 입 술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 게 됩니까? (3:9)

Whose name will be called by the people whose lips are cleansed to serve God? (3:9)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까? (3:17) What kind of people does the prophet Zephaniah say the Israelites will be to God?

God Moment

(3:17)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환난을 통한 정결

Sanctification through tribulation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여호와의 날을 작정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심이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을 통하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케 하셔서,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다. 여호와의 분노의날이 있기 전, 남유다 백성들의 입술은 부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의 날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고자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의 깨끗함을 경험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뵙고 입술이 부정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제단에서 핀 숯을 그의 입술 에 대어 그의 입을 정결케 해 주셨다(사 6:6-7).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하는 선지자로 세워 주셨다.

환난의 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존재였지만, 환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었다(3:17).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God has not appointed the Day of the Lord in Judah to destroy them, but to change them. Through the day of adversity, God cleanses the lips of many peoples so that they a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serve God, and bring gifts to God. Before the day of Jehovah's wrath, the lips of the people of Judah were unclean. They were people who called the names of idols instead of God, and they spoke lies. However, God intends to cleanse their lips through the day of tribulation so that they can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to serve Him.

The prophet Isaiah also experienced the cleansing of his lips. When he saw God and despaired that his lips were unclean, God put charcoal from the altar on his lips to purify his mouth. (Isaiah 6:6-7) And he established him as a prophet who preaches the word of God

Before the day of tribulation, they were beings who brought God's wrath, but after the tribulation, they are transformed into beings that God loves and pleases. (3:17) Even when we face tribulation, there is hope because God purifies us from sin and makes us into beings that can worship and serve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내 생각에는···" I 열왕기하 5:9-17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뭣이 중헌디? | 열왕기하 18:1-6, 19:14-19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I 하박국 3:8-19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I 스바냐 3:9-20

"내 생각에는…"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1 여는 질문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 본문 이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높다고 하지만(이사야55:8)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특별한 생각,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가 나병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나아만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히브리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말에 나아만은 잔뜩 기대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아람을 구원케 하심으로 크고 존귀케 하셨고(1:1),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태도와 말로 인해 나아만은 분노하여 그냥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어떻게 자신의 병을 고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이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5:11).

나아만은 자신이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크고 존귀한 존재임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쉽다고 하여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겼 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며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번 씻고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 크고 존귀함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3 말씀 속으로

- 1.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11)
- 2. 나아만이 그냥 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는 종들은 그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5:13)

4 삼속으로

- 1.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나의 성격이나 생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2.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행하거나,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3.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이끌기위해 히브리 여종과 나아만의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나아만의 종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5 암송 구절 - 열왕기하 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⑥ 자녀와 나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니?" (자녀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뭣이 중헌디?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새484장(통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1 여는 질문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버리기에 망설여지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본문 이해

2016년 개봉된 영화 '곡성'에서 유행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인 아버지가 추궁하는 말에, 딸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치며 하는 말입니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뭣이 중헌지도 모 름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함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남유다왕과 백성들은 그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기에, 이방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상들을 자신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중요치 않은 것들에 마음을 뺏겨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선왕들이 열심으로 섬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상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신들을 불에 던지면서,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19:18). 히스기야는 우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할수 있었고, 우상제사가 이루어지는 산당들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숩니다. 그 놋뱀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만든 뱀인데(민21:9), 그것이 신격화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면서 느후스단(구리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놋뱀이 치유의 능력을 발하는 신이 아니라, 구리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히스기야는 알았기에 그것을 부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요치 않은 허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중요한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이시라" 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19:15, 19).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돈과 과학 문명과 사람들이 나를 부요케 하고 복되게 할 것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것들을 신격화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신이 신 하나님을 잃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믿음은, 내가 신격화하며 의지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홀로 남겨두고 의지할 때에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뭣이 중헌디?' 의 질문에 하나님만이 중요함을 고백하며, 우상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말씀속으로

- 1.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거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18:4)
- 2. 히스기야가 그의 전후 유다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5, 19:15,19)

4 삼 속으로

- 1. 당신이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2. 당신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5 암송 구절 - 열왕기하 18:5-6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 자녀와 나눔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니? 만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자녀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새293장(통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여는 질문

당신은 현재 사회를 보면서 무엇으로 인해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② 본문 이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악과 불의가 팽배할 때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 만연한 불의를 보면서 사람들의 악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분이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위해, 남유다보다 더 불의하고 폭력적인 갈대아인(바벨론)을 동원하시겠다는 말에 하박국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박국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악인이 자기 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1:13) 하지만 하박국선지 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 잠잠한 분이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그 불의를 징벌하시는 분임을 말입니다(1:5). 이제 하박국은 세상에 만연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멸망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3:2).

그러기에 하박국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논밭에 식물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노래합니다(3:17-18).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힘이 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죄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에 탄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는 슬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의 상황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불의를 처벌하시고자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3:8),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악으로 인해 절망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말씀속으로

- 1.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3:8-9)
- 2.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합니까? (3:18-19)

4 삼속으로

- 1. 당신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즐거워 하십니까?
- 2.하박국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7-18절의 하박국의 노래를, 각자의 버전(Version)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처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과 이를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버전으로 글을 써보시고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암송 구절 - 하박국 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6 자녀와 나눔

"네가 보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니?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신다고 생각하니?"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나눕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새411장(통473장) 아 내 맘속에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1 여는 질문

당신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왜 당신을 기쁨으로 맞습니까?

2 본문 이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그것보다 가치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고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3:13).

그런데 스바냐가 예언하는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로 소멸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3:8).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3:9). 우상을 부르던 남유다 사람들의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은 징벌의 과정을 통해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정결하게 만드셨고, 새롭게 창조된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괴롭히던 이들을 벌하시고,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치있게 만드셨고, 다른 이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남유다가 무엇보다 기뻐하며 놀랄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자,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함으로 하나

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실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말씀속으로

- 1.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합니까? (3:14-15)
- 2. 하나님께서는 수욕받는 자에게 무엇을 얻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3:19-20)

4 삼속으로

- 1.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 2. 당신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꾸어 칭 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찬과 명성을 받기를 원하십 니까?

5 암송 구절 - 스바냐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 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 리라"

6 자녀와 나눔

"하나님께서 너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키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frac{1}{1}$

"I thought"

1 Opening Question

When did you feel that your thoughts and those of others were different? And how did you react at that tim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lthough it is said that God's thoughts are different and higher than those of men (Isaiah 55:8–9), people often live by their own thoughts rather than God's thoughts. God had special thoughts and plans for Naaman, the army chief of the king of Aram. Naaman was a great and noble man in Aram. But there was a weakness that lowered his self–esteem: he was a leper. In the meantime, there was a way to solve Naaman's own worries. A Hebrew maid from Israel told that he would be healed if he goes to see the prophet Elisha. When he heard the words, Naaman looked forward to finding the prophet Elisha.

Naaman's promotion to be a general and contracting leprosy were all God's plans. God made him great and honorable by saving Aram (1:1), and made him seek God's man because of his leprosy. He wanted to make Naaman realize that his life was under the control of God. Naaman visits Elisha with many gifts to heal his illness. However, Elisha did not meet him, nor did he accept the gifts Naaman had brought. Naaman thought he needed to give gifts to be healed, but God wanted to show him God's full grace. God's grace does not need to be paid for, but instead accepted as a gift.

Naaman's plan became stumbling blocks to receiving God's grace. Elisha's attitude and words made Naaman angry and wanted to go back. Naaman thought about how Elisha would heal his sickness in advance, but when it did not work out, he became angry and eventually he refused God's grace. (5:11)

Naaman does not realize that he is dealing with God, and he insists that he is a great and honorable being even before God.

Naaman disregarded God's grace as worthless because it was too easy just to accept it. And he was angry at Elisha's dismissive attitude toward him. His servants said to Naaman, who is angry and wants to return to Aram. "If the prophet had told you to do great things, wouldn't you do it?" Eventually, Naaman changes his mind and obeys Elisha's words, washing his body seven times in the Jordan River and being cleansed like the flesh of a child. He then realizes God's omnipotence and sovereignty and decides to serve God. God's grace appears through various channels. Therefore, make sure that your thoughts do not interfere with God's grace. Sometimes, because of their greatness and dignity, people do not receive grace. We must humble ourselves and obey God. We should strive to understand the thoughts of God, not our own thoughts. Through this process, when we realize and obey God's sovereignty, we will experience God's grace and power.

3 Into the Word

- 1. Why was Naaman angry and disobedient to Elisha's words? (5:11)
- 2. How did the servants persuade Naaman when he wanted to leave? (5:13)

4 Into our Life

- 1. What are the personalities or thoughts that hinder me when I try to receive God's grace?
- 2. How do you try to understand God's thoughts?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are doing well or not doing well according to God's thoughts?
- 3. God used the Hebrew maidservant and Naaman's servants to lead Naaman to Elisha. To whom do you think you have been sent by God to be like the servants of Naaman?

(5) Memory Verse - 2 Kings 5:14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God wants you to be? (Ask questions so that your children can see themselves from God's point of view.)



What is important?

1 Opening Question

Are there any items in your home that you are hesitant to throw away? Wh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is a line that was popular in the 2016 movie "Gokseong". The father, a police officer, accuses his daughter, and his daughter yells at him.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King Hezekiah was able to become a good king in God's eyes because he knew what was important and drastically eliminated those that were not. In the meantime, the kings and the people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did not know what was really important to them, so they valued idols that the Gentiles regarded as important and were eager to serve them. However, the unfortunate thing is that they lost the most important thing while living with their minds focused on the things that were not important.

However, after Hezekiah became king, he became eager to remove the idols that the predecessors served with zeal. Hezekiah was able to do so because he knew the reality of these idols. Hezekiah threw the gods into the fire, saying, "I destroyed them because they are not gods, but only wood and stone." (19:18) Hezekiah knew that idols were not important, so he was able to drastically remove them, and he also removed the high places where idols were worshiped. He even breaks the brass serpent that Moses made. The brass serpent was made according to God's command to save people when they were bitten by snakes and dead in the wilderness (Num. 21:9), but it had been deified. Hezekiah breaks it and calls it Nehusdan (a piece of copper). Hezekiah knew that the brass serpent was not a god that gave off the power of healing but no more than a piece of copper, so he was able to break it.

Hezekiah was able to remove the insignificant illusions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God alone was important. Hezekiah repeatedly confesses that God is "God alone." (19:15, 19) Many people regard what is made by human hands as a god. They deify money, scientific civilization, and people thinking that those things will make

them rich and blessed. In the end, they lose God, the only true God.

God alone is God. There is no other god other than God. The belief that God is the only God is affirmed when we remove the things we deify and depend on and lean on God alone. God's people must confess that only God is important when aske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strive to eliminate idols in their lives. We must live a life that proves that only God is the most important being and God alone is God.

3 Into the Word

- 1. What did King Hezekiah eliminate after he became king? (18:4)
- 2. Why do you think Hezekiah relied on God more than any of the other kings? (18:5, 19:15,19)

4 Into our Life

- 1. What do you rely on in your life? What would you do if they became stumbling blocks to trusting God?
- 2. In what way do you live a life of confessing that God alone is God?

5 Memory Verse - 2 Kings 18:5-6

"He trusted in the LORD, the God of Israel, so that there was none like him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after him, nor among those who were before him. For he held fast to the LORD. He did not depart from following him, but kept the commandments that the LORD commanded Moses."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some of the people or objects that you think are most important? What would you do if these things hinder you from believing in God?"

(Guide y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see God as the most important being in their lives.)



I will rejoice in the Lord!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been dismayed because of what you see in society? And what was the hope of that despair?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People are bound to despair when sin and injustice prevail in this world. Even more desperate is when these things don't show any signs of being resolved. The prophet Habakkuk was confused by the evils of people as he saw the injustice that prevailed in the southern kingdom, Judah. What made him even more frustrated was the fact that God, who has the ability to solve this problem, was silent. Furthermore, Habakkuk lost his words when God said that he would mobilize Chaldean (Babylon), who was more unrighteous and violent than Judah, to solve the problem of injustice in Judah.

These questions have been raised by many other than Habakkuk. "Why do you look on the treacherous, and are silent when the wicked swallow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y?" (1:13) However, the prophet Habakkuk gradually grew in understanding through his dialogue with God. God knows the unrighteousness of this earth better than anyone, and he is not silent toward the unrighteous, but punishes the unrighteousness in a wonderful way. (1:5)

Now Habakkuk is singing the joy of God despite the sins that prevail in the world. Even in the midst of the destruction due to God's punishment, he believed that God would show mercy to God's people and ultimately save them. (3:2) Therefore, Habakkuk sings that he will be pleased with Jehovah God even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lossom, no fruit is on the vines, and there is no herd in the stalls due to God's wrath against Judah. (3:17–18) Habakkuk can sing because he realizes that God is the God of salvation, and that God is his strength.

When we look at the sins that prevail on the earth, it seems there is no hope in this world. And when we see ourselves living in sin, we have no choice but to groan. When we experience suffering in our lives and the foundations of our lives are shaken, we

have no choice but to mourn.

However, even in the midst of this despair, we can rejoice because we can behold the God who rides on chariot of salvation to punish the injustices of this land (3:8) and the God who saves His people through compassion in the midst of wrath. When we are in despair due to evil, we may live a life of hope rejoicing in God like Habakkuk who beheld the God of salvation

3 Into the Word

- 1. What kind of being does Habakkuk describe God as? (3:8-9)
- 2. What character of God caused Habakkuk to rejoice in God? (3:18–19)

4 Into our Life

- 1. What kind of being do you describe God as? What part of God causes you to rejoice in God?
- 2. Even though Habakkuk speaks realistically of an unpleasant situation, he confesses that he rejoices because of God. How can you change Habakkuk's song in verses 3:17–18 to your own version? (Let us think of terrible situations we may have faced and the God who helped us overcome them. Please write your own version and share it with each other.)

5 Memory Verse - Habakkuk 3:17-18

"Though the fig tree should not blossom, nor fruit be on the vines, the produce of the olive fail and the fields yield no food, the flock be cut off from the fold and there be no herd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take joy in the God of my salvation."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some of the evil things you think are happening on this earth? How do you think God handles these things? (Please share that sins may prevail in this land yet God is the Sovereign Ruler of all who rules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Be glad and rejoice with all your heart

1 Opening Question

Who are the people who love you and welcome you with joy? Why do they greet you with jo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People want to be loved by others or to bring joy to others. However, if I become a loving being who gives joy to God, there will be no more valuable life than that. The prophet Zephaniah invites the Israelites to sing joyful songs with all their hearts. The reason is that God will not only save them, but will make them special beings whom God delights in and loves. (3:13)

However, at the time when Zephaniah prophesied, the people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were the object of wrath of God, not joy. They sinned against God, and God decided to pour out all his wrath on them. He declared that the whole earth would be destroyed by God's jealousy. (3:8)

God's wrath is not about destroying sinners, but rather it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m into objects of God's joy. At that time, God cleansed the lips of many people so that they may a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serve God together. (3:9) Through the process of punishment, God purified the unclean lips of the people of Judah who worshiped idols. The people who were at war with each other were made to become one in order to worship and serve God. God made Judah pure. When He saw them newly created, God loved them and said that he was overcome with joy.

In addition, God promised to punish those who harassed Judah, and God promised to those who were ridiculed around the world that they would gain praise and fame. When Judah was purified as God's people, God made them valuable and praised by others.

The most joyful and surprising thing for Judah is that the Almighty who saved them, the God who loves and rejoices, is among them. The saints, the redeemed people of God, are those whom God loves and wants to be with. Therefore, believers may live as

beings that God is always with and loves by continuously calling and worshiping God with pure lips.

3 Into the Word

- 1. Why did the prophet Zephaniah ask Zion's daughters to rejoice and sing? (3:14–15)
- 2. What did God say those who are humiliated would gain? (3:19-20)

4 Into our Life

- 1. When God sees you, what part of you do you think will bring joy to God? How do you treat those whom God loves and rejoices over?
- 2. When you bring to God the shame and suffering you face on earth, God will transform it for you to earn praise and fame. What kind of praise and fame do you want to receive from the world?

(5) Memory Verse - Zephaniah 3:17

"The LORD your God is in your midst, a mighty one who will sa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he will exult over you with loud singing."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y do you think God loves you and delights in you so much?

(Please remind your children that they are God's children and that fact alone brings joy to God. Please encourage them to live as children who are the joy of God.)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555 Country: Honduras

Serving At: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Brazil

Jobim, Amanda Alexand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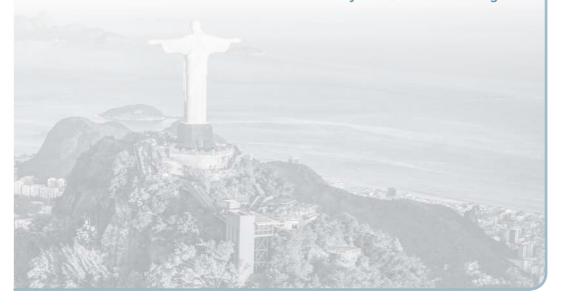
Amanda Alexandre Jobim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S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Amanda is from Rio Novo, Minas Gerais, Brazil. S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Methodist church in Rio Novo, Minas Gerais. In 2018, she received a degree in production engineering from Salgado de Oliveira University, Juiz de Fora. She has worked as an intern, in sales and as a secretary.

When she was 6 years old, Amanda recalled, "I went to church with my father. At the age of 9, I made the decision to be baptized. At the age of 16, I received my call for missions, joined IMFORM and did two years of mission and evangelism. I flourished under the district superintendent of juveniles and I exercised my ministerial gifts within the communications ministry at my local church." "I remained engaged in missionary projects to this day, waiting for God's time for commissioning.""

Contact Info: aalexandrejobim@umcmission.org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

김영봉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VA)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님께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 렘 성전에 가야한다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 가야한다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으냐고. 이 질문에 예수 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 4:23)"라고 답하신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모두 '영적으로 진실되 게'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 나기 위해 이산, 저산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 므로 우리 영이 살아있는 한 늘 하나님과 동 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한다. 영성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은 점점 또렷이 보인다. 어디에서든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둘러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꼭 찾아가야 할 장소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 무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더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정서적으로 기도에 쉽게 빠져 들어가게 해주는 환경이 있고, 몰입을 방해 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깊은 차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찾아갈 필요가 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그런 기도 장소가 있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웰치 채플(Welch Chapel)'이라는 곳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예배실은 앉는 즉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현재 몸 담고 있는 학교에도 대학교회 예배실이 있는데, 고풍스러움은 없지만 예배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예배실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심어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준다. 그렇다고 꼭 화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풍스럽거나 소박한 예배실이 더 나을 수 있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론, 너무 화려하게 혹은 웅장하게 장식된 예배실에 가면 기도에 몰입하기가 어려웠다.

인공적인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데 더 유익한 경우도 있다. 산이나 들로 나가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때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절로 터져나온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다. 언젠가 대전 보문산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두 손을 들어 축복기도를 올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들이 많아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서서 기도를 올렸다.

기도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곳저곳을 전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분위기 좋은 예배실이 가까이에 있다면 자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다. 더 바람직한 것은 집 안에 혹은 집주변에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다. 고교시절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을 개조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았던 친구 집을 방문한적이 있다. 그 골방에서 친구 어머니가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당시까지 나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 안에 이런 기도방을 하나 마련해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굳이 그런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된다. 내집 어느 한 곳을 기도의 성소로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집이 비좁다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좋다. 집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든지, 집 근처 공원으로가든지, 아니면 조용한 찻집으로 가면된다.

생활 속에서 기도 장소를 찾을 때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좋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네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 67:6)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신앙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차단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 상황에서는 집중하기 어렵다. 집중은 기도의 핵심이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의 소음으로부터자신을 격리시키기 위함이다. 주변의 소음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정도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어느 장소를 정하면, 그 곳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좋다. 기도 장소가 고정되면 앉는 즉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다. 물론 때론장소를 바꿈으로써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달팽이는 등에 집을 지고 다니므로 언제 어디서고 귀가하고 싶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기도실에 관한 한, 우리는 달팽이처럼 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지고 다니라는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정도 혼자 전철을 타고 가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있거나 단잠에 빠지면 수월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무척 힘들다.

이럴 때 신속하게 등에 지고 있는 기도방으로 들어가라. 서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올리거나 묵상 기도를 해보라.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한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그 여행은 전혀 피로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과 충전의기회가된다.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 중 하나다. 이 경우에도 접수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실로 들어가라.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과거생활에 대해 묵상하라. 왜 이런 질환을 얻게 되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묵상기도를 하다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병을 고쳐야 할지 알게 된다. 또 병원 대기실처럼 중보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은 없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신체적인 아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중보기도는 더욱 절실해진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때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보다 더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도 있다.

가는 곳마다 그 곳을 기도실로 삼아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생기로 충만해 진다. 단 몇 분도 허비하는 일이 없고 기도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 영성이 강해지 면 환경을 극복하여 이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비밀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 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 5

광야에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면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인다

> 이진희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이를 읽다〉 〈광아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므로 광야가 시작되었다. 이 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 셨다. 요셉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광야는 끝났다.

모세는 순간의 실수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만에 찾아오셨을 때 그의 광야는 끝났다. 알고 보니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 받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데 관심이었다. 그들이 언제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에서 실패

하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내몰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삶을 살았다. 사울이 죽었을 때 비로소 다윗도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다. 사울은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이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거쳤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언제까지니이까?"라는 탄식이 많이 있다. 언제나 이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까 라는 탄식이다. 다윗은 13년동안이나 "언제까지니이까" 라는기도를 해야만 했다.

광야에 들어가 있는 모든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기약이 없다. 막막하기만 하다. 속히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야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광야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내가 이 광야에 왜 들어왔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떠밀어 넣으신 것일까?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광야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 하게 기도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코로나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는 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 고만 기도하 지 않았는가? 우리의 관심은 그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보다는 빨리 백신이 개발될수 있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코로나 광야 속으로 내몰아 넣으셨는지 모르고 이 코로나 광야를 벗어난다고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무서운 광야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왔다.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 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 셨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워 주셨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가나안에서 광야로 내몰릴 때도 있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내보내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광야에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다. 광야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깨달 어야살길이 보인다.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 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잘 아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바벨론 포로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 하고 돌아왔다.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회당을 세웠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대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 이 없자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다. 탈무드도 이때 쓰여졌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시작되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적인부흥을 일으켰던 종교적인 르네상스 시대였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서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의 광야를 지날 때였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밀월 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시간이 단축된 것은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70년을 다 채워야 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3).

잘 아는 말씀이다. 이 말씀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 주시 겠다고 하셨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역의 때를 줄여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다. 그 대신 광야에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사 49:14-16). 잘 아는 말씀이다.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있는 동안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 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 새해에 주시는 말씀 이 아니다.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벨론 포 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속히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실 것이다. 어떤 시련이나 연단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광야를 잘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지금 이 광야에들어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하면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2년이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40년이 걸렸던 것처럼 말이다.





암울했던 영국 상황

18세기 영국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부패하여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술집이 몇 집 건너 하나씩, 어떤 동네는 한집 건너 하나 씩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의 영국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도박장이었다는 말까지 전해 졌으며 음주, 도박, 타락한 연극장 등 이 세가지가 무서운 전염병처럼 번져서 영국사회를 파 멸로 몰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영국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는 당시 영국인들에게 치유와 회복, 소망의 메세지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영국국교회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때문 입니다. 영국국교회는 1534년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교회를 국가가 조직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대다수 영국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권력에 예속되어 타협했고, 그 결과 일반 서민들의 종교가 아닌 일부 특권층의 교회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다수의 국교회들은 고교회(High Church) 전통의 권위있고 엄숙한 예배의식 만을 고집함으로 인해 가난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노동자 계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상실하고 이웃사랑의 본질도 잃어버렸습니다.

회심의역사로가득한영국

당시 영국 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과 달리 존 웨슬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 하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웨슬리의 복음 전파는 야외설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야외설교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절친한 친구였던 조지 휫필드의 요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서의 복음적인 회심체험(1738년 5월24일)을 한지 10개월이 지난 1739년 4월1일, 영국 남서부의 항구이며 무역도시였던 브리스톨(Bristol)에서 첫 번째 야외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웨슬리는 약 52년간 말을 타고 다니며 순회설교를 했는데, 매년 약 5000 마일을 여행했고 2년에 한 번씩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전체를 돌았습니다. 웨슬리는 평생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를 여행하며 총 40,000번 이상을 설교한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로 살았습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매번 수천명의 사람이 야외설교를 통해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외설교를 시작한 이후 한달 동안 42,000여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그 기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를 돕기위한 소그룹

웨슬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성화의 방법과 그 은혜의 통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속회-Class Meeting-소그룹' 입니다. 웨슬리는 속회를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 성도들의 성화를 조직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속회, 밴드, 선발신도회, 참회자반입니다.

■ 속회(Class Meeting)

속회는 1명의 속장과 11명의 속회원들로 구성되었고,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충실한 속회 출석자들에게 3개월마다 회원표(ticket)를 주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3개월마다 회원 자격을 조사하였고, 속회원들은 이 출석표를 통하여 충실한 감리교인 (Methodist 메도디스트임)을 확인받아 분기마다 열리는 애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새 회원에게는 3개월의 수련기간을 충실히 거친 후에 첫번째 표가 주어졌고, 회원 표는 연합신도회의 3가지 규칙인 '모든 악을 피하고,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실행'하는 회원들에게는 계속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표 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속회 참여금지나 공동체로 부터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결석하면 속회명부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속회제도가 채택된 이후 신도회 내의 불경건한 자들과 악한 행실들이 존 웨슬리에게 보고되었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신도회 명단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은 속회를 통하여 마음과 생활을 개혁하고, 경건하며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속회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마음을 털어 놓고, 속장(소그룹리더)이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충고나 권면, 교정이나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완전한 성화를 위해 몸부 림치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고, 이러한 속회의 모임을 통하여 속회원들은 암울한 현 실생활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 밴드(Band)

속회가 일반적으로 모든 신도들이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영적 생활을 요약 간증하는 형 태였기때문에 영혼의 심층적 체험과 철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에, 밴드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자기 내면 의 철저한 성찰, 죄의 상호고백,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독을 통한 신앙고백적인 모임이 바로 밴드입니다.

밴드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속회보다 적은 5~10명정도로 구성되어, 나이와 성별, 기혼자와 미혼자로 구분하여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 받기에 용이 하도록 조직하였습니다.

밴드모임은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을 엄수하여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반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지난 모임 이후 자신의 죄와 시험과 유혹 등 영적 싸 움에서 겪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숨김없이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장은 각 회원들의 고백에 대하여 적절한 위로와 용서, 책망과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 로 한사람씩 서로를 위해, 특별히 완전한 성결을 얻기위한 뜨거운 중보기도를 함께 한 후 축 복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밴드 모임을 통하여 속회에서 충족되지 않았 던 깊은 삶의 나눔과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선발신도회(Select Society)

선발신도회는 밴드보다 더 제한된 모임으로 이 모임의 회원들은 밴드 회원 중에서 하나 님의 빛과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즉 그리스 도의 완전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사람들을 선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매주 월요일에 있 었고 이 모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에 별도로 지도자를 세워 인도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규칙을 세워 훈련시키지도 않았습 니다. 이들에게는 단지 3가지 지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 1. 이 모임에서 했던 말은 어떤 말도 다시 말하지 말라
- 2. 모든 회원은 사소한 일에서도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 3. 모든 회원은 매주 1회 정해진 헌금을 가져온다.

■ 참회자반 (Penitents)

존 웨슬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회 안에서 포기하는 낙심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일 저녁 따로 신앙훈련을 시켰는데, 그곳이 바로 참회자반입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신앙의 수준, 삶의 정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성도들의 성화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돕도록 하였고, 이러한 웨슬리의 노력으로 감리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어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원, 912-355-8225) 사라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사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서중일,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담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적,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포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작나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박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삼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삼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연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섬,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하인교회(김영휴,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배혁 목사 (샌안토니오 한인연합감리교회, TX)

❖ 주일 칼럼

백승린 목사 (템파한인연합감리교회, FL) 홍성국 목사 (앨리바마프렛빌 한인교회, AL) 김세환 목사 (아틀란타 한인 교회, GA) 이준협 목사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G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 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